

신앙생활 실패의 첫째 원인

박진호

(www.whyjesusonly.com)

차 례

들어가면서.....	3
두세 번 뿐인(?) 인생의 대박 기회.....	7
과속 운전이 성경적 죄가 되는 이유	23
향방 없는 달음박질을 하지 않는가?	36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51
주께 하듯 사랑하라.....	64
너무나 느긋하신 예수님.....	78
조급증을 없애는 최고 비결	93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싶은가?	114
영적 분별력의 본질.....	128
하나님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길	147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신자들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살아계셔서 세상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자기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받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헌신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순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실현에 그리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 혹은 지체하는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만사를 주관함을 믿기는 하는데 사실상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凡事)를 주관한다면 당연히 고난도 범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재 겪는 어려움과 하나님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여겨버립니다. 지금 그분의 뜻과 맞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자기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신데 이럴 수는 없다고 고집, 오해, 착각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 신자에 따라 가끔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 일어나는 주원인은 인간의 죄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기에 모든 고난은 어쨌든 그분이 허락 내지 묵인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통해 신자에게 바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그분만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묻고 또 물어서 깨닫고 그에 적합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일부 신자는 그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알아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만한 영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당장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만 간구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을 지난 신앙생활 동안에 수없이 체험해보고도, 고난만 닥치면 그저 어서 빨리 구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또 다시 아우성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미처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완전히 그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묵묵히 순응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야 하는 가야 합니다. 요컨대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실패는 그분을 그곳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을 성마른 조급함이 차지하고는 그분의 오묘하고도 풍성한 사랑의 손길을 막고 있는 꼴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팽팽 돌 정도로 기술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단지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는 것만도 힘에 겨울 정도입니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동화와 신속화가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느긋한 생활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과속현상이 누구에게나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더욱 초조해집니다. 천천히 삶을 즐기다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혼자만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이 앞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소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곰곰이 그 과정과 결과를 되새겨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대로 되었음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새 일을 시작하면 지난 실패는 까마득하게 잊고서 자기 계획한 대로만 끝까지 고집하기 바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한번 뿐이며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성공하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면, 아니 퇴보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그 방안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일정표에 자기 시간표를 맞추는 것 말입니다.

어떤 심리 상담학자가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는 경우가 둘 있는데 큰 고난에 빠져있을 때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가중되는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여전히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도무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더욱 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기쁨을 더 충만히 채우고 간직하려고 일분일초가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고하며 희생하기 바쁩니다.

실제 물리적인 시간의 속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으며 단지 멈춘 것 같은 느낌만 듭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선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긍정적 상황에서 한 시라도 더디 가기를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을 인간이 결코 통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개인 별로 자신이 경험하는 영역 내에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주관적 감정적 인식만 달라집니다.

신자가 조급증을 없애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그 길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그분에게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응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면 당연히 그분으로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더욱 진실하게 순전하게 무엇보다도 느긋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약 십여 년 전에 시리즈로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E-book 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현실의 일상적 삶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어떻게 시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최소한 매일 걸어야 할 영적인 걸음만이라도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느긋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 년 8 월

두세 번 뿐인(?) 인생의 대박 기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14)

빨리 빨리의 정신

오래 전 동남아시아의 관광지에 가면 현지인 점원들 누구나 한국말 중에 최소한 세 마디는 구사할 줄 안다는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다. 워낙 관광객이 늘어나고 한류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진 지금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한국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기 전인데도 한국인 상대로 장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말이었다.

첫째, 무조건 가격부터 깎으려 드니까 “안 비싸요!”라고 해야 하고, 둘째는 혹시 가짜가 아닌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진짜요!”라고 항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워낙 계산이나 포장을 서두르니까 “빨리 빨리!”라고 맞장구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특성을 너무나 정확히 꼬집어낸 개그다.

이 중 가장 유별난 것은 아무래도 “빨리 빨리”의 근성일 것이다. 미국 이민 오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의 열림과 닫힘 단추를 전혀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여겨졌다. 한국은 누구나 쉴 새 없이 눌러대는 바람에 표시가 다 벗겨질 정도이지 않는가? 그 전에 미국출장을 왔는데 악천후로 비행기에 탄 채로 공항활주로에 서너 시간 묶인 적이 있었다. 그 때도 어느 한 사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모두 책을 꺼내 읽으며 조용히 기다리기에 속으로 과연 대국답다는 감탄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꼈던 적이 있다.

성질 급한 한국인 Best 10 이라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다. 그 중 Top 4 만 인용해보면, 4 위) 커피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 꺼내는 사람, 3 위) 컵라면 물 붓고 3 분을 못 참아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이는 사람, 2 위) 현금인출기, 마트, 패스트푸드에서 짧은 줄 찾아 동분서주하는 사람, 1 위) 상대방이 통화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 번 이상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는 각기 다른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한국인이 이 네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다 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 평가를 접하니깐 얼마나 조급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다.

물론 “빨리 빨리”의 정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정신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을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특별히 IMF 위기를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IT 산업의 문자 그대로 초고속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내었지 않는가?

급기야 그런 정신이 한국을 신제품의 성공여부를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시장으로 꼽게 만들었다. 금방 익숙해지지만 금방 싫증도 내니까 과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이 얼마나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오래 끄는지 한국인들에게 팔아보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은 그만큼 품질과 효용성에서 뛰어나다는 반증이라는 뜻이다. 거기다 휴대폰의 예에서 보듯이 금방 싫증내는 기질로 인해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조차 못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호주의 한 미래학자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한국의 동향을 살피면 된다는 말까지 했겠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기에 미래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재빨리 처리하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 된다. 최근에 일본이 한국을 두렵게 여기는 까닭도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들과 달리 너무나도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변화에 적용하기에 비록 시행착오는 다소 겪지만 아주ダイナ믹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속성과 융통성이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되면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비록 조변석개 같은 예산 집행으로 낭비도 없진 않지만 이 또한 쉽게 잊어버리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때문에 그리 문제 되지 않는다. 작금의 세계적인 문화, 세태, 조류가 필수적으로 스피드를 요구하기에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태생적으로 우위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득(得)보다 실(失)이 큰 조급함

그러나 조급함이 개인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급하게 설치선 이익을 얻기보다 낭패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신규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뜻 투자했다가 쫓딱 망한다. 단 하루도 못 참고 주식을 팔아 치우는 바람에 빚내서 투자한 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로 대판 부부 싸움을 하고 급기야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경의 인물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아니 조급함의 잘못을 범해 큰 낭패를 보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녀에게서 아들을 낳아 가족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를 제공했다. 모세는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해 애굽 관원을 죽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40 년간이나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지내야만 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조급함의 대명사로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 했고 다윗만 보면 죽이려 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별을 받았다. 요나는 최악이 관영한 이방 도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밧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야 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잘 고백해놓고는 금방 인간적 의리를 앞세우다 야단맞았고 급기야 하루 저녁에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자의 대표가 되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성경은 조급함을 죽이라고 곳곳에서 직간접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그 대표적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29)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 21:5)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 29:20)

잠언서 기자는 조급함을 어리석음과 동일시하며 궁핍함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성질 급한 자의 지능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다. 전후 사정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엉뚱하고도 백해무익한 판단과 행동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또 그래서 경영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여서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감할 수 있는 말씀이다.

거기다 성경은 언어에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고 말한다. 조금 어수룩해서 어눌한 자와 상대를 하는 것이 낫지 성격이 급해 함부로 말을 내뱉는 자는 신뢰성을 까먹고 비호감만 조성할 뿐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말로 형제를 바보라고 저주하는 자는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 그러는 줄도 모르고 지나친다.

이런 조급함이 결정적으로 확장되어진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자살이다. 한국은 자살 천국이다. 교통사고로 죽는 이보다 더 많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 위이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음에도 국민들 스스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 가깝다. 이 모든 것이 조급성 때문이다. 아주 좋게 해석해야 다들 너무 똑똑해서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경쟁하여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까지는 좋아도 스스로 자기 분을 못 이기면 자기만 손해다.

불신자의 경우 조급함의 궁극적 도착지가 자살이지만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 불만, 원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조급하지 말라고 명했고 실제로 잘못된 예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신자는 순전히 자기 조급함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생겼음에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는가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일쑤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거의 대부분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큰데도 그런 반성은커녕 분석도 얹으려 든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기도라는 형식만 갖추고선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함부로 내뱉기 일쑤다. 거기다 하루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매일 새벽마다 마치 빗쟁이처럼 독촉한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실감하는 조급함의 폐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조 염려 분노가 덮치면 속으로 조용히 하나에서 열까지 헤아리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가? 일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일은 잊도록 노력하고 차분히 다시 묵상하여야 하는가? 신자이기에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행해야 하는가? 그러나 자칫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인내심과 평정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인가?

가장 자주 범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는 신앙의 오류

한국 신자와 강단이 너무나 자주 범하는 잘못이 하나 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그 내면을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부족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성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무조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여서 이겨내라고 권하는 것이다. 본 주제와 연관시키면 조급해서 손해를 자주 보고 때로는 죄까지 짓는 문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인내심을 얻어 이겨내라는 것이다. 반면에 솔직한 현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인내심이 생기지 않고 욕하는 성질부터 튀어나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속수무책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근본 원인부터 알아내어야 한다. 원인을 알면 이미 그 문제는 반 이상 해결 된 것이다. 정확한 원인에 맞춘 정확한 해결책이 수립되면 그 해결책대로 따르면 된다. 해결책을 손에 쥔 이상 시간과 여유에 맞추어 자신과 싸울 일만 남았다. 신자더러 믿음과 기도는 등한시하고 전문가에게 현실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대로 실천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조급함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에 맞추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용서하기 힘들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 무엇을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등을 모른 채 무조건 용서만 한다면 두뇌와 심장 모두가 빠진 신자가 된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취약은 없으며 하나님도 그런 약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자가 자기 속을 깎아내는 고통과 번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당신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용서하길 원하신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용서하라고 권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대답한다. '믿음'과 '기도'라는 너무나 은혜로운(?) 용어가 동원된 너무나 지당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하다가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다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서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 원인과 해결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간의 사랑의 본질부터, 또 하나님이 과연 부부의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이루려는지 확신하지 못 하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하지 않는 권면이다. 그저 종교적으로 옳은 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인간의 체질은 진토 같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원리를 확신하게 되어도 실제 실천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서다. 너무나 연약하며 어리석은데다 죄의 본성까지 살아 있어서 제대로 실천 못하므로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요컨대 조급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단순히 어리석다,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권면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훨씬 심오하며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성경이 조급함을 어떻게 말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급함이 생기는 일차적 직접적 원인과 또 그 해결책도 바로 시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시간의 두 가지 개념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다.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神)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먼저 “크로노스”는 그리스 모든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의 아버지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삼켜 먹어버렸다. 크로노스의 아내는 제우스가 태어나자 또 죽게 버려둘 수 없다고 여기고 돌을 아기인양 강보에 싸서 남편을 속이고 태아는 몰래 숨겨 키웠다. 제우스는 장성하자 예언대로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여서 지하세계에 영원히 묻어버렸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을 뜻한다. 하루 24 시간, 일 년 365 일, 흘러가는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붙잡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서 죽게 마련이며, 그 중간과정인 일생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다. 시간에 묶이는 세상만사도 일단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을 향해 달려가게 마련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이다. .

시간의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다. 이는 “기회(機會)의 신”의 이름이다. 긴 머리카락이 앞 얼굴을 무성히 가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인지 잘 모른다. 또 어깨에 큰 날개가 둘 달려 있고 발에도 작은 날개가 둘 달렸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잡지 않고 주저하고 있으면 곧바로 날라 가버린다. 뒷머리는 완전한 대머리로 머리카락이라곤 없다. 기회가 지나간 뒤에 후회하며 뒤늦게 잡으려 들어도 도무지 잡을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아무리 많고 고달픈 일을 해도 그 일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보람차다면 전혀 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이 난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아주 쉽고 편한 일을 해도 일상 반복되는 일이면 그저 짜증나고 귀찮다. 또 진짜로 좋아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아무 일 없이 쳐다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와는 아무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근사한 오페라를 구경해도 연신 하품만 나올 것이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통제 밖에서 그저 흘러가버리는 객관적 시간이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그 객관적 대상 안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객관적 길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바뀌는 주관적 시간이다.

크로노스의 인생

사람이 크로노스 시간에 묶이면 그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안에 처리할 일의 목록대로 완수되지 못하면 초조와 불안이 엄습한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치우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린다. 자기 삶과 인생의 성공여부를 가름 하는 잣대도 오직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뽑는 경제원칙 뿐이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도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성경에 너무나 좋은 예가 나온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38-42)

다들 잘 아는 이야기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진심어린 성의는 높이 사줄만 하다. 그러나 식사 대접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마리아가 자기 일을 거들어주면 빨리 대접할 수 있고 그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반면에 마리아는 둘 중에 한 가지 일만 택했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뜻도 식사보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마르다로선 그 선한 본심과는 달리 대접 받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만 참 대접이라는 기본 예의마저 지키지 않은 꼴이 되어버렸다. 그저 일의 효용성을 중시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능한 쪼개어 아껴 쓰며 더 많은 결과를 맺으려 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권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으니 진짜 100% 이상의 효용성이 보장된다고 칭찬했다.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일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 마르다는 오히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깨우쳐 준 셈이다. 당시 상황에선 요리 준비마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6,7)

성경은 그래서 크로노스의 인생을 사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주께 얻지 못한다고 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두 마음은 물론 믿음과 의심의 둘을 뜻한다.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거기다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저작할 때에 이런 시간의 두 개념을 의식적으로 고려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본문의 원론적인 의미를 실제 삶에 적용하면 그런 결과가 도출 된다는 것이다. 마르다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는 것도 일종의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일을 단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려는 욕심이 우리의 기도에 많이 내포된다. 아니 거의 전부일 것이다. 지금 신자가 처한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 심지어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뤄내야 할 일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이 것저 것 하고 싶은 일을 주저리주저리 아낄 뿐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고 꼭 해야만 할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개수에는 상관없이 당연히 온전한 믿음으로 아낄 것이며 또 생각이 분산될 리도 없다.

카이로스의 인생

모든 사람이 시간 개념에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거나 또는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좋은 삶의 태도로서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에는 현재라고는 전혀 없다. 어떤 사물, 사건, 사안이 자신의 지정의로 인식되면 벌써 과거가 되어버린 후다.

시간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과 동일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덮치듯 다가와선 단 일초라도 붙잡을 여유는 전혀 주지 않고 우리 뒤로 쏜살 같이 달아나버린다.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가 비록 인생에 몇 번 없고 놓치기도 쉽지만 간혹 정신을 바짝 차리면 잡을 수는 있다. 반면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짹, 짹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있다. 도무지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언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쪼개서 쓰려 한다.

크로노스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인간은 과거를 사는 자와 미래를 사는 자 둘로만 나뉘 뿐이다. 순간순간 느끼는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음에도 이전의 영화나 이미 날라 가버린 기회만

탄식하고 있다면 크로노스 형 인간이다. 반면에 과거에 대한 미련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날만 바라보는 자는 카이로스 형 인간이다.

서두에 인용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즉, 이미 자기가 행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한다. 대신에 오직 앞에 있는 뜻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잡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 그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다. 천국에서 완성될 영광스런 구원만이 그의 삶과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었다.

다른 말로 그는 미래를 향해서만 살았다. 비록 도무지 잡을 수도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 안에 갇혀 살지만 그는 그 시간 안에 자기 고유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간 것이다. 매 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한 마디로 내가 지금 왜 살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확신하면서 살아간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에게 조급증이 생길 이유라곤 없었다. 지난 실패나 미진한 부분에 자꾸만 미련과 후회가 쌓인다면 언제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 염려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난날처럼 또 실패하지나 않나 초조함부터 생기게 마련이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지나간 허물, 잘못, 실수, 실패, 낙심, 후회 등이 생기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과거의 아무리 큰 실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크고 풍성하며 영광스런 하나님의 미래만 바라보았던 것이다. 과거는 자연히 잊혀지게 되며 그 상처는 물론 흔적도 남을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크로노스의 인간은 오직 시간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만 따진다. 현실에서 열매가 얼마나 풍족하게 열렸느냐가 유일한 관심사다. 심지어 신자들이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따지려 드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신이 몇 시간 기도했으며, 며칠이나 금식했으며, 얼마나 헌금했으며, 새벽 기도에 하루 안 빠지고 개근했으며, 등등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주로 외적으로 경건을 실천한 양(量)이다.

자연히 하나님에게 바라는 은혜도 현실에서의 외적인 보상이다. 재물, 명예, 권세만 바란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투자했으니 자기에겐 더 확실하고도 화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영성에서마저 투자한 만큼 비례하여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여긴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효율성, 생산성, 경제 원리 같은 것은 하나님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용어다. 그분의 세상을 통치하는 일반 은총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측면에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간단히 말해 부모가 이해타산을 따져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그 고유의 가치와 의미만 따진다. 아니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분이다. 쉽게 말해 신자를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바꾸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만 원하신다는 것이다. 신자더러 바울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흔히들 현실적으로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신분, 능력, 여건에 처한 사람이라도 평생에 세 번쯤 절호의 기회는 온다고 말한다. 바로 그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잘 포착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극적인 인생 반전을 이루어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경기의 막차를 탄 사람, 미모만 가진 여자에 홀려 끈질기게 따라 다니는 갑부 집 딸을 걷어 찬 사람, 새 아이디어로 동업하자고 찾아 온 친구를 문전박대 했더니 대박이 난 것을 뒤늦게 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실감이 나는 말이다. 또 그런 대박 찬스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함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리스인들이 카이로스의 신을 그런 모습으로 고안한 것을 보면 고대나 지금이나 인생살이의 고달픔은 동일하고 또 인간의 욕심도 여전한 것 같다.

그러나 신자에게도 과연 평생에 성공할 기회가 두세 번뿐이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평생에 겨우 두세 번의 기회만, 그것도 아주 희미한 모습인지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쉽게 날라 가버리는 식으로 주는 그런 찜찜한 분이 결코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생에 한두 번 도와주고 말 것인가? 자식이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죽기 전까지 뒷바라지 할 용의가 있다. 인간적 능력의 한계로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긴 해도 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인생이 괴로워서 고난의 해결을 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항상 기쁘지 않으면, 또 범사에 감사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뜻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모든 순간이 인생 성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접하는 모든 사건, 사람, 환경 등이 그분 안에선 절대 실패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일생에 세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열 번이 넘게 그분의 기회는 찾아온다. 신자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일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묻어져 나오며 그분의 이 땅을 다스리는 완전하고도 의로운 섭리가 실현된다. 당신의 기회는 기껏 수량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고 따질 계제가 전혀 아니다 그분의 그분다우심이 인간이 기대, 예상, 계측, 상상 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게끔 신비롭고도 풍성하게 드러난다. 문자 그대로 신묘막측(神妙莫測)할 뿐이다.

성경이 신자더러 어떤 적은 자,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라고 권하는 까닭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께 한 일과 같다고 한다. 모든 일이 당신의 기회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범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권세가 완벽하게 신자에게 전해지며 또 신자를 거쳐 주위에 나눠지게끔 당신께서 일하신다. 신자의 눈에는 당장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있는 참 실체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

심지어 신자가 스스로 실망하다 못해 하나님께 의심, 불만, 원망하고 있어도 그분의 신자를 통한 역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요컨대 신자는 신자가 된 것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할 수 있으며 천 우주의 모든 좋은 기회를 이미 다 거머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을 리는 없다. 하나님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지구의 회전 속도와 맞먹는 속도로 다가오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일 뿐이다. 모든 순간이 복 받는 순간이며, 모든 일이 복 받은 일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며, 모든 여건에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포되어 있다. 어떡하든 대박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며 발버둥 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을 그분께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만 잠잠히 지켜보면 된다.

그 때 비로소 인간적 조급함은 사라진다. 조급함으로 인한 인생의 실패도 없어진다. 조급함이란 한두 번의 기회만 있을 때에, 그것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를 때에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기회라면 구태여 하나씩 잡으려 들 필요 없이 그저 누리고 즐기면 된다. 그렇게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신자가 되어서도 어떡하든 범사를 자기만의 기회로 삼으려는 욕심이 생생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과 사건이 그분의 기회라고 확신한다면 조급증은 사라질 것이다. 시편 기자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바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는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9-12)

과속 운전이 성경적 죄가 되는 이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한 순간이라도 빨리 가자.

미국 서부의 가장 큰 도시인 LA 는 지진이 잦기로 유명하다. 가정집은 지하실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고 내진(耐震) 시설에 경비가 많이 들기에 고층빌딩도 그리 많지 않다. 필연적으로 도시가 아주 넓게 퍼져있다. 도시가 너무 커서 아무리 미국이라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설을 하기가 벅차고 거의 모두가 자기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년 중 날씨가 따뜻해서 살기 좋기에 이민자의 천국으로 인구집중현상이 심하다. 자연히 자동차는 넘쳐나고 도시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긴 해도 러시아워엔 밀리기 일쑤다. 사고라도 나면 한두 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다. 약속 시간에 다른 이유로 늦더라도 오는 도중에 차가 밀렸다는 거짓 핑계를 대어도 쉽게 양해 될 정도다.

따라서 어쩌다 고속도로가 밀리지 않고 소통이 잘 되면 혹시라도 다시 막히거나 사고가 날까봐 정신없이 빨리 달린다.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괜히 여유부리다가 늦어서 거짓 핑계 대는 것보다 낫다. 또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선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신자의 경우 혹시라도 다시 교통체증에 걸려 늦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는 결정적 하자가 있다. 성경은 심지어 그런 생각을 악하다고까지 말한다. 성경에 교통체증에 관한 가르침까지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利)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3-17)

야고보 사도는 장사꾼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신자 장사꾼은 아무 소원도 계획도 없이 두 손 놓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계획을 세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성실히 일해야 한다.

사도는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을 두고 “다 악한 것”이라고 했다. 장사치가 한 말은 단지 계획일 뿐인데 왜 자랑이라고 표현했는가? 가서 큰 이익을 남긴 후에 사람들 앞에 빼기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겠다고 자기 소원과 계획만 말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몇 가지 자랑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만한 자랑이 분명 포함되어 있다. 그 말만 떼어내어 다시 잘 살펴보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利)를 보리라.”

우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일 년을 유하며”라고 이주해서 장사할 시기와 체류 기간을 자기가 한정지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칫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을 짜는 것까지 잘못이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신규사업계획에 시간표가 붙지 않으면 상상이나 꿈으로 끝난다. 연도별 사업 진행 계획이 따라야 함은 필수적이다.

초점은 “이(利)를 보리라”는 말에 있다. 바로 허탄한 자랑이자 악한 것의 핵심이다. 신자가 사업 개시 날짜를 정하고, 어느 도시에서 장사할지 그 장소도 정했고, 일 년이라는 사업 기간도 정하면서, 그 기간 안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이익을 볼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같은 천재 사업가는 아무리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어떤 신규 사업을 벌이더라도, 단 일 년 안에 궤도에 올리는 것은 물론 이익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요체는 자기라면 얼마든지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큰소리친 것이다.

요즘으로 쳐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건방지게 그런 말을 했다고 교만하다거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신자이면서 자기 세운 계획대로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신 간섭과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 한 것이다.

LA 에서 신자들마저 혹시 고속도로가 다시 막힐까 염려되어 뚫리기만 하면 급하게 내달는 것도 같은 성격이다. 일 분을 빨리 가려고 과속하다 사고를 내어 평생을 먼저 가게 된다는 위험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에는 자기가 가고 있는 전방(前方)에선, 그것도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전제가 되었다.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주관에만 맡겨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악한 것이다.

맹세도 악한 것이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 5:33-37)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주셨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장담을 허탄하고 악한 것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맹세하는 것도 “악으로 좇아 난다”고 하셨다. 이전의 율법사들은 단순히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만 가르쳤다. 주님은 더 나아가 아예 맹세 자체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다. 맹세의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또 꼭 지켜야만 할 큰 담보를 걸더라도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은 구약에도 그와 비슷한 가르침이 이미 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 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전 5:5,6) 서원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더 나아가 맹세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머리카락 수자는 최하 십만이며 하루에 빠지는 개수는 정상인의 경우도 40 여개라고 한다. 그렇게 흔한 머리카락도 인간이 제 멋대로 할 수 없다. 희고 검게는 물론 빠지는 것조차 막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 앞날을 인간이 미리 알고서 특정사실을 예단(豫斷)할 수 있는가? 특별히 맹세를 해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럴 수는 정녕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더더욱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께 맹세를 건다고 해서 인간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맹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뤄지도록 간섭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일 뿐이다. 정말로 우주에 오직 한 분인 절대적 존재다. 그분은 오직 당신 스스로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반드시 그분께로부터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공급받는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은 물론 그 사이의 전체 과정은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가능하고 또 지속된다.

반면에 피조물이 그분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로운 신자가 아주 선한 뜻으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뤄지게 해준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신자의 경건한 기도의 응답도 오직 그분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지 신자의 소원, 열정, 갈급함, 믿음, 의로움 등도 기도응답의 일차적 조건이, 그분의 부차적인 고려 사항은 될지 몰라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엄밀히 말해 신자가 믿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속에서조차, 뭔가 강제력을 사용하려 시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컨대 40 일 작정 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합심통성 기도 등이 기도 응답을 신속히 받아내는 수단이나 통로로 동원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진심과 소망과 열정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방안은 될지 몰라도 말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으려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가자마자 풍토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지 않는가? 물론 그 선교사의 진심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또 당신의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순교 후에 당신만의 방법과 때에 부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신다. 즉 선교사의 기도가 당신의 고려사항이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흥도 일차적으로 하나님만의 절대적 계획과 섭리 때문인 것이다.

만약에 평소에 아주 의로우며 믿음이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치자. 믿는 자들 사이나, 주변의 불신자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생기겠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의 충실한 종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아주 매정한 신이라고 오해 내지 매도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분은 절대적으로 그분일 뿐임을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꼴이다. 결과적으로, 법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로 십계명의 제 3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셈이다.

이단 교파의 결정적 잘못

간혹 일부 이단교파에서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이나, 국가에 대한 맹세마저 거부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 단어에 대한 뜻도 미처 모르는 너무나

어리석은 경우다. 또 그런 가르침에 어지간히 깨인 사람들도 넘어가니 웃을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다. 정말로 사단이 그 영을 미혹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맹세를 금지하는 근본 이유는 살려본 대로 장래 일을 인간이 절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정선서, 국기에 대한 맹세, 또 단적 예로 병원의 수술 동의서 같은 서류에 사인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단하는 일이 아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 혹은 서원하는 것일 뿐이다. 맹세와 서약은 그 단어적인 의미조차 다르지 않는가?

알기 쉽게 설명해보자. 법정에서 증언 선서는 재판 과정 중에 절대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진심과 각오를 밝히는 일이다. 이미 일어난 과거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아주 의로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의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서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실상 자신의 마음이 변하여 거짓 증거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교파에선 신자더러 법정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다.

법정 선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장래 일을 인간인 주제에 미리 예단 보장하는 맹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자신이 자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에 대해 더 큰 진정성을 내포시켜서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행위일 뿐이다. 자기와 사람들에게 약속마저 못하게 하는 계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수술 동의서 등도 똑 같은 성격이다. 스스로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뜻이며, 수술로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치료가 불가능해도 반발하거나 배상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사만 면책하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껏 밝혀진 모든 의학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했기에 본인과 가족이 수술하기 원해야만 시술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마저 맹세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국가에 반역하겠으며, 수술하지 않아서 환자가 더 악화되어도 좋다는 뜻이 된다.

“예나 아니오”만 하라.

문제는 간혹 신실한 신자 가운데도 성경 말씀의 문자적 의미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경 속의 화자(話者)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나 내용에 맞추어서 앞뒤 문맥을 검토 분석하지 않는다. 예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것도 상대방 인간을 설득시키려는 뜻이지 이미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예하고, 지킬 수 없는 일은 아니오라고 하면 되지 구태여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악한 것이므로 도무지 맹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니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솔직한 진심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버티기는 물론, 공개적으로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분의 계명은 어디까지나 신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며 진실하게 변모시키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서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가난함에 대해 애통해 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어떤 계명이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려고 예 해야지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의 계명을, 특별히 인간 사회에 지켜야 할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대로 따르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하셨다.(엡 6:2) 절대자로서 자기를 따르는 교인에게 일방적으로 종교적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려는 뜻이 아니다. 아바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신을 순전히 따르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복 주시려는 계명이다. 아니 정말로 계명대로 사는 자라면 별도의 은혜가 따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고 권면하지 않는가? 또 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후 1:18)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는 약속 있는 계명은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아니 그만한 축복도 이 세상에는 없다. 바울은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1,32,38,39)

신자는 하나님에게는 항상 예로, 사람들 사이에는 맹세는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또 예라고 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작 항상 아니오라고 거부해야할 상대는 따로 있다. 하나님의 정 반대편에 있는 사단과 죄악에 대해선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단연코 No 라고 해야 한다.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인 사람은 사랑하고 사단과 그 세력은 저주하라는 것이다.

신자의 교만과 겸손

예수님이 신자더러 맹세를 금지한 뜻과 연관시키면 신자의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해도 이전 달라져야 한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예의를 규정하는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 쉽게 말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성경적 겸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신자 이전에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비록 신자가 되어서도 제대로 못 지키지만, 도덕적 기준이다.

실은 아주 예의 바른 겸손을 가장한 지극히 악한 교만도 많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점잖게 물러서는 모습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면 사악한 죄다. 다른 이들을 까마귀로 낮춰 본 것도 잘못인데, 자기를 백로로 높였으니 두 배의 교만이기 때문이다. 간혹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사단에 미혹된 영인 그들을 괘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똑 같은, 아니 더 심한 죄다.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들춰내어서 죄로 정죄하셨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 신자의 겸손은 숨은 동기까지 겸손해져야만 온전한 겸손이다. 진정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주께 하듯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 겸손은 여기서도 하나 더 나아가야 한다. 신자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의 선하고 악함이 반드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이 하나에서 열까지 그분의 거룩하고 완벽한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철저한 인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교만과 겸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5-7)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장로에게 순복하는 겸손을 먼저 권했다.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도 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한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서로 태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염려를 완전히 주께 다 맡겨 버리는 것이 참 겸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겸손이 아닌 것 즉, 교만이라는 것이다. 신자 특유의 교만과 겸손의 기준이다.

거기다 자세히 보면 장로도 젊은이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뜻의 말씀이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다. 청년들만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다. 청년이 장로에게 겸손한 것은 쉽다. 그 반대로 장로들이 청년에게 겸손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다. 교회 내의 모든 문제를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맡기지 않고는 어지간해선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신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치우겠다고 덤비면 교만이다. 신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무시한 셈이다. 때로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일인 것 같아 기도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해버리면 그것도 교만이다. 신자더러 성경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신 뜻이라고 권한 근본적 이유다.

다른 말로 신자가 단순히 그분의 계명만 지켜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일에 총력을 쏟으면 자칫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뿐일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신자로서 가야할 길을 못가는 셈이다. 바로 그것이 교만인데 신자가 신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성이 급한데...

조급함이 죄라고 해서 체질상 성격이 급한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천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지어 체질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그 자체가 은사와 재능이 될 수도 있다. 베드로의 예에서 보듯이 일단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순종하는 특성이 있다. 자칫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를 부르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느긋함도 반드시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자칫 게으름을 불러올 뿐이다. 반면에 매사에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실수를 가능한 줄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힘을 합쳐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각기 역할만 다른 지체로서 충성해야 한다. 성격이 급하든 느리든 그분의 뜻에만 예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지금 논하는 조급함은 그런 천성적 급한 성격이 아니다. 천성이 급하든 느긋하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일이 자기가 예상하거나 계획해 놓은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정하거나 예상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이 진행되어야 정상이라는 고집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장사꾼과 같은 인식이다. 만약 일 년 안에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 내지 계획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급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악한 일이 되지 않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베드로 사도는 더 놀라운 진술을 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8 절)라고 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앞 절과 연결시킨 문맥상의 적용은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이 가장 삼키기 좋은 자는 염려를 주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 자라는 뜻도 된다.

사자가 운다면 배가 고파 환장을 한 것이다. 신자를 향한 사단의 음흉한 탐욕에는 포만감이란 영원토록 생기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신자를 미혹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균열, 왜곡, 약화 시키려는 것만이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자의 가장 기본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다. 그런데도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있다면 신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다시 불신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셈이다. 사단이 구태여 사냥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의 먹이 창고에 들어 가버린 꼴이다. 천성이 급하든 느긋하든 자기가 정한 일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조급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이미 죄에 빠졌거나 빠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다우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만이 참 믿음이자 또 참 겸손이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해치우겠다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다. 또 그만한 죄도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조급증도 그에 못지않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급함이 죄가 되는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최소 둘은 더 있다.

향방 없는 달음박질을 하지 않는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5-27)

불안감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최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 극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세계적 불경기가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작금의 불경기가 단순히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 때문이거나, 경기 사이클이 나빠진 탓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생산, 유통, 소비 모든 측면에서 자동화, 정보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서 전통적인 직장이 상당수 필요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구조적 불황인지라 일할 만한 직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풍족하게 자라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의 꿈을 펼칠 때가 되어선 캄캄한 미래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지성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 각 개인마다 아주 큰 꿈을 품을 수 있게 된 세대가, 이전에는 몰라서도 제대로 꿈꾸지 못했지만, 그 실현할 길은 도리어 막히는 기막힌 모순이 노정되었다.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져 가진 자 1%와 못 가진 자 99%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못 가진 자는 평생을 땀 흘리게 일해도 가진 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상실감마저 생겼다. 대다수 개인은 실직하고 소득이 감소하는데 반해 글로벌 대기업만 예외인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서서히 호응을 얻고 있다.

일종의 역사적 경제적 큰 전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언제 호황이 올지 예측을 불허한다는 뜻이 된다. 빈부의 차이를 메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또 현재의 경제구조를 대체할 마땅한 제도가 없다는데 고민은 더 깊어진다. 이러다 칼 마르크스의 망령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까 두려울 정도다.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그를 지원하는 서구와 아랍권 극단 세력 간의 해묵은 갈등이 최근 절정을 향해 치닫는 듯하다. 이란의 핵개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선 지금껏

그래왔듯이 서슴없이 선제공격도 감행할 것이다.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서서히 드러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 자칫 신냉전이 형성될 조짐도 보인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전환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극단 세력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만 해도 북한정권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선전해온 강성대국원년이자 삼대세습이 시작되는 2012년에는 그간의 실패를 덮으려고 어떤 도발을 감행해올지 모른다. 마침 지난 12월 17일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남북 간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다. 내년은 남한의 총선과 대선은 물론 미국 대선까지 겹쳐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격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거기다 무차별적인 자연훼손과 경제발전으로 인류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이상 기후와 각종 자연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에는 화산과 지진 활동마저 부쩍 심해졌다. 이런 흉흉한 정황에 편승하여 온갖 이단 종파들은 종말 예언으로 한몫(?) 잡으려 든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말세의 죄악들

한마디로 젊은이나 늙은이나 안락한 미래를 실현은커녕 설계조차 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지구 전체가 뒤덮여 있다.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조급함을 불러 온다. 초조하고 두려운 심리적 증상을 어서 빨리 중지 시키고 안락감 내지 평온함으로 회복되고 싶다. 그러려면 불안을 일으킨 나쁜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유발시킨 원인이 거의 외부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조급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일의 진척이 더딘 조급증의 원인 대부분은 자신에게서 기인한다. 최악의 경우 자기 계획을 포기해버리면 그에 따른 조급증도 사라질 수 있다.

반면에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불안감은 자신의 통제 밖인 것이 대부분이다. 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보라. 극심한 불경기, 사회 구조적 문제, 환경오염과 자연 재앙, 불안한 정정 등등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결코 아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라 정도는 달라도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감과 그에 따른 조급증도 죄악이라고 지적한다. 신자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인 경제나 정치에 민감한 해졌다고 야단치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적인 죄악과 이단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앞 2 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 된 자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 가르쳤다. 3 장에선 말세의 죄악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신자더러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승리하라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3:14) 했다.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죄악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죄라는 뜻이다. 신자라면 더더욱 멀리해야 할 죄다. 그 가운데 조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주로 기질상의 약점처럼

간주하기에 나쁜 결과를 유발하지 않은 이상 죄가 될 것 같지 않은 조급증이 사실은 마지막 심판마저 재촉하는 큰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사도가 열거한 죄악들이 그리 심각한 것 같지 않고 또 지금껏 모든 세대가 다 범해왔기에 구태여 말세를 재촉하는 죄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자세히 따져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 죄들의 배경에 일관된 사상적 흐름이 분명히 엿보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세태와 너무나 일치한다.

포스트모던의 실체

계몽주의가 발달하자 인간이성과 과학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품게 되었다.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당장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부풀었다. 그 위대하고 의로웠던 비전은 일이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무참히 깨어졌다.

그런 실패 이후의 이 세대(post-modern)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심성이 상실되고 모든 표준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성과 과학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칼은 사라졌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방임적인 감성과 직관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현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단순히 죄악의 정도가 심해지고 점차 불신자들도 늘어나면서 기독교 교세가 약해진다는 정도로 이해해선 안 된다. 신자들마저 역사상 최고로 안락한 물질문명을 누리며 인권과 자유가 잘 보장되는 가운데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너무 떨어져버렸다.

포스트모던 이전까지의 모든 세대에는 모두가 믿고 의탁할만한 중심성과 표준은 있었다. 역사상 모든 세대의 모든 종족에게는 각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준거가 있었다. 그 준거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적용했다. 이를테면 비록 비성경적이긴 해도 원시시대에는 각 종족마다 제사장과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암흑시대라는 중세에도 교황과 교황청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종교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회라도 나름대로의 도덕률과 관습이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고 모든 이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그 중심들의 형태가 유형적인 인간이나 인간의 단체든, 무형적인 관습 법 도덕 종교든 간에 단순히 공동체내의 범죄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었다. 이제 포스트모던에는 그런 준거들이 거의 모두 해체되어 버렸다. 완전한 해체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인간 죄악의 양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의 발달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통방식의 급속한 보급으로 모든 죄악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니까 더 심각하고 많아 보일 뿐이다. 죄가 전 세대에 계속 편만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부인 거역 저주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세대가 범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악은 바로 죄를 판단할 기준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죄 자체가 실종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를, 특별히 개인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는 중심성이 상실된 것이다. 계몽주의로 하나님에 관한 견해가 서서히 불경하게 바뀌면서 그분마저 실종되기 시작한 때에도 이성과 과학이라는 절대적 준거는 있었다. 이젠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을 하나로 묶거나 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전혀 없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그저 남은 것은 완전히 파편화된 개인들뿐이다. 전통적으로 선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기준들은 더더욱 해체작업이 가속화 되었다. 심지어 한 개인 안에서도 온갖 형태의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가 자신조차 전혀 감도 못 잡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종말의 특징을 천천히 살펴보자. 한 마디로 자고하여져서 자기만 사랑하는 증상들이지 않는가? 오직 자기뿐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정도는 모든 세대에 있어왔지만 이젠 부모마저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판에 이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참소하고, 배반하여 팔게 된다.

또 자신의 사고와 말과 행동의 방향을 잡아줄 절대적 중심이 없으니까 감성과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순간순간 기분 내키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니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조급하게 된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또 감성은 쾌락을 쫓기 마련인데 세상 쾌락은 모두 선과 등을 지고 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에도 모든 악이 선으로 위장하고 있다.

지금껏 개인과 사회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버팀목이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선과 의를 지향했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형상이 타락하긴 했어도 희미하게 남아 있는 흔적인 양심에 따르려 했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사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고 경우에 따라선 거꾸로 악한 것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다. 죄라고 범주되어지는 사안이 전혀 없다. 대표적 예로 동성애나 혼외정사가 전적으로 각자의 자유에 속한 것이기에 결코 죄가 아니다. 그런 행위가 악하다고 판단만 해도 도리어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저해하는 악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신자의 분주함, 불신자의 조급함

믿고 의지할 중심성이 사라지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은 조급증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런 조급증은 이미 말한 대로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한 것이나, 자기가 계획한 일의 진척이 늦어서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 또 일을 빨리 많이 처리하는 분주함과도 다르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다. 그도 분명히 달음질은 했다. 다른 이와 다른 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을 뿐이다. 향방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달리는 달음질은 아무리 급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당시의 올림픽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고 말한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서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일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더러 개인적 현실적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된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생을 통해 실현하라는 것이다. 구원이후 신자의 삶의 자세다.

물론 그 목표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소지한 자로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야 한다.

신자가 되면 반드시 자기 사고와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확실한 기준이 하나 생기게 된다.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좁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며 무엇이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망에 불들리게 된다.

그렇다면 자꾸만 자신을 그러지 못하게 만들려는 즉,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전의 집착, 편향, 선호, 미련 등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경건을 훈련하여야 한다.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그 일에 정말로 열심히 달음질 즉, 부지런하고 아주 바빠야 한다. 사단과 죄악은 절대로 쉬지 않고 신자를 시험하고 유혹하기에 절제하는 일에 느긋하고 게으를 수는 결코 없다.

앞선 글에서 성경적으로 조급함이 죄가 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논하는 종말의 보편적 심리상태인 조급증도 같은 맥락이다. 항방 없는 달음질을 하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중심이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는 내면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인간은 하나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으면 생령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만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이가 그 형상이 파괴 왜곡된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서 영적 교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하나님을 버리고는 웅덩이를 아무리 깊게 판들 그 비워진 공간에 생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미 종말의 세태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제거한 불신자들을 향한 영원한 진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의 조급증이 보편적 심리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다고 해서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를 온전히 붙들어 줄 진짜 중심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분명 그 본인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그와 반대여야 한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향방이 분명하면 아무 결실도 못 맺는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 한 쪽 방향의 끝인 종착점에 도달하게 된다. 신자는 선한 싸움에 정말로 바쁘게 달음질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에 대한 열망과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아무리 바빠도 조급증이 생길 수 없다. 신자 되었다는 큰 특권 중의 하나가 자신이 걸어가는 향방이 온전히 정해져 있기에 범사에 조급증 대신에 평온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말세의 진짜 징조

흔히들 말세의 징조를 외적 현상에서 찾으려 든다. 도덕적 성적으로 극심한 타락, 대규모적인 자연재앙, 최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와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등에서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단지 말세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제 곧 말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이지 말세가 본격적으로 닥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4-8)

그런 외적 증상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 분명히 두려워말라고 했다. 반면에 막상 말세가 닥친 후의 상황을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9-13 절)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지 않는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한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는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넘기워진다고 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즉, 세상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그럼 정작 신자가 판단할 말세의 징조란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 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처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껏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조가 득세를 해도 그래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틀은 있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가름 짓는 기준은 있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동체의 보존과 번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은 알았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켜서 영적 타락을 주도했다고 비난받는 케네디 대통령만 해도 국가가 너희를 위해 해주길 기대하기 보다는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반대다. 자기 안일과 쾌락을 위해 공동체가 자기를 섬겨야 한다고 믿는 세태로 변했다. 내 개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국가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말하자면 각 개인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서 스스로 자기 충족을 구하고 있다. 모든 사회가 정말로 완전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에 말세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게 된 원인도 오직 개인이 왕국이 된 까닭이다. 자기의 기분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미워한다. 문제는 그렇게 백 프로 해체된 개인들이

과연 자기 힘으로 충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대로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붙기다.

포스트모던 세대가 나타난 결정적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자기 속으로 파고들기만 했다. 태어나고 죽는 일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자기 충족을 자기가 구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런 자들을 세계 제국 하나로 묶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흥미롭지 않은가? 인간 스스로 무덤을 판 결말일 뿐이다.

자기 충족을 스스로 구하는 최종 단계는 개인이 개인의 왕국을 쌓는 것이다. 그동안 함께 쌓으려던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나 혼자만의 유토피아로 만족하겠다는 고집이다. 최근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사조도 엄밀히 따지면 그런 성향의 일종이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미 있게, 정확히 말하면 남들과 다르게 더 잘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웰빙은 절대로 웰빙이 될 수 없다.

정작 문제는?

지금껏 말한 것이 불신자를 탓하려는 뜻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신자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조급함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모두가 극도로 개인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성향이라고 했다. 어차피 모두가 그렇게 바뀌게끔 역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역으로 말해 불신자들에게 그런 잘못을 지적해주어 쉽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말세가 올 리도 없다. 그들에겐 조급증의 잘못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반면에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미 말한 대로 말세의 조급증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최근 기독교가 개인적 성향으로 해체되기 바쁘지 않는가? 종교성과 영성으로 포장하긴 해도 신자는 개인 왕국을, 교회는 교인들만의 왕국으로 바뀌었지 않는가?

예컨대 교회가 심리 치유 전문 병원이 되어 가고 있다. 신자들마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에 심리적 기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심을 심어주기에 급급하다. 그 치유과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중생의 씻음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 요컨대 불안감에서 오는 조급증을 없애려 교인이나 교회나 조급증을 내고 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권면은 강단에서 사라졌고 마치 성경에 없는 구절 같아졌다.

신자 고유의 말세적(?) 잘못도 있다. 이미 말한 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징조를 잘 분별할 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세상 사람들을 교묘하고도 음흉하게 오도하는 영적 흐름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말세로 오해한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특징이다. 신자가 신자 된 신분과 특권을 잊고 쉽게 불신자 시절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다른 조급함이지 않는가?

서두에 열거한 현 세대의 불안감에 신자가 함께 부화뇌동하는 것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조급증이다. 다른 말로 말세의 조급증이 세상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천재적인 정치가나 학자가 나타나 현세대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도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음을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 모든 선한 것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께로만 오고 역사를 실제로 통치하는 이는 그분 혼자임을 잊고 있는 조급증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구를 태양에서 조금만 뒤로 물리치면 단 번에 해결된다. 전환기에

들어선 경제적 위기는 그동안 물질 우상만 추구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인 셈이다. 바꿔 말해 인간의 자승자박인 것이다.

새로운 경제체제를 고안하든, 아니면 호경기 사이클로 회복이 되든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문명이 더 복잡하고 고급하게 발전할수록 문제 또한 그에 따라 복잡하고 고차원적이 될 뿐이다. 아니 인간이 처한 정황은 이미 실타래처럼 엉키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종말에 나타나는 신자의 조급함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성경이 종말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닥칠 때에 신자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지 않는가? 절대 조급증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조급증이 일반적 현상이 되면 종말이 다가왔다는 징조로 분별해야지, 그들의 불안감에 물들어 같이 조급해지지 말라는 것이다.

간혹 어서 빨리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이상한 종말관이 있다. 진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피하려는 패배주의라면 너무나 큰 조급증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참여한 자에게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주셨다. 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간섭으로 죄악과 사단과 사망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다. 신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도록 이런 은혜와 권능 안으로 초대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들어서 쓰시도록 자기 전부를 비워 내어드리느냐 여부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 중의 하나로 지금껏 대부분이 미처 몰랐던 “조급함”을 들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움이 없으면 초조함도 없어지는 법이다.

바울이 열거한 말세에 나타날 죄악의 실상을 정반대로 바꿔 보라. 바로 지금처럼 모든 이가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 때에, 나아가 말세가 언제 닥치든 간에 신자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지해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다.

“자기나 돈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급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하며 자비하며 화해하며 남을 세워주며 절제하며 인자하며 악은 저주하고 선한 것만 좋아하며 배반치 아니하며 인내하며 자기를 낮추며 쾌락과는 담을 쌓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그 능력을 추구하라.”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9-11)

조급함이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이유가 최소한 셋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조급증은 자기 계획과 뜻만 고집하다가 그대로 진척이 안 되어 초조해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에 죄가 된다고 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조급해지는데 그 이유는 내면의 중심이 상실 되고 모든 기준이 해체되어서 방향 없는 달음질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죄가 되는 이유를 살피면서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다. 조급해서 사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선부른 판단을 부르기에 인생을 실패케 한다는 뜻으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정도는 성경이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자 인생처세술에 해당된다. 구태여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인 성경이 다를 문제가 아니다. 조급함이 죄가 되려면 그 이유도 훨씬 다른 뜻이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이란?

인생을 실패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사람과 경우마다 다 다르다. 그 중에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도리어 인생을 가장 성공케 하는 요인부터 따지는 것이 편할 것이다. 가장 큰 성공을 못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됨은 자명하지 않는가?

그럼 인생을 가장 성공케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재물, 권력, 명예, 지성, 건강, 외모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런 현실적 기준은 아무리 따져도 성공에나 실패에나 너무 다양하기에 등급을 매길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조급증을 죄라고 하는 이유를 찾고 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신자가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지으신 이가 따로 있다면 그 인생은 생래적으로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의지 자체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살고 죽음을 자유롭게 고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그 중간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무 심오하고 경건하게 생각할 것 없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복잡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인류 발전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쌓으라거나 종교적으로 신령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직 두 가지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1:37-40)

그런데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개인적 관계다. 제삼자가 간섭, 개입,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거기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종교적 행위를 기록하고 경건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현실적 인생살이의 성공과 실패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 물론 인생 성공의 궁극적 원인은 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시적 공통분모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적인 하나님 사랑 그 자체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웃 사랑이라는 가시적 열매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너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돕는 배필”(창 2:18)이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의 결혼 생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그 때는 둘 뿐이었고 그 둘이 인간 전부였지 않는가? 유독 인간만은 그 일생의 목적이 여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더 있다. 모든 동식물은 그 존재 목적이 오직 종족 보전이다. 반면에 인간은 단순히 이 땅에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번성해야 한다.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고 성삼위 하나님들 간에 이뤄지는 완벽한 사랑을 닮아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덴은 그랬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별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이기적 욕심으로 타산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다. 타락 이후 실낙원(失樂園) 한 인간이지만 신자는 복락원(復樂園)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다.

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은 가름되어진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만해도 그 업적으로 따라올 개인적 부나 명예 같은 보상보다는 그 일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한 자이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차적으로 원하시는 사랑이란 사람끼리의 사랑이다.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왜곡 모순 파괴되며 자연히 그 인생은 괴롭다.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잘못도 죄악이 더 심하게 타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 사이에 참 사랑이 실종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랑의 본질

조급증이 죄가 되는 셋째 이유는 바로 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욕하는 성질로, 또 자존심 살리느라 양보를 못해서 연인끼리 부부끼리 싸우는 단순한 조급증도

물론 문제다.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뜻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사랑 자체가 조급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랑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어떤 이를 열심히 좋아하고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현상인가?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해주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인생을 성공하는 요인을 먼저 찾은 후에 역으로 실패하는 요인을 따져 보았다. 이처럼 어떤 사안을 정확히 살피려면 반대 되는 개념을 확실히 정리한 후에 그것의 반대를 살피면 의외로 분명하고 쉬울 때가 많다. 때로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그것이 아닌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간단한 이치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인가? 상대를 싫어하거나 분노하며 미워하는 것인가? 아니다. 애정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연애했던 상대와 헤어져서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거나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시기와 질투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 반드시 연적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인을 향할 때 오히려 더 크고 깊어지지 않는가?

정말로 싫어져서 헤어졌다면 어느 순간 아예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워진다.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조차 싫고, 정확히 말해 귀찮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아예 관심 밖이다. 헤어진 연인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자와 다시 만나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리 만큼 전혀 시샘이 안 생긴다. 내가 언제, 왜, 얼마나 저 사람을 좋아했는지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정도다. 결국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이다. 그럼 사랑의 본질은 무관심의 반대 즉, 관심이 된다.

엄밀히 따지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 그저 좋은 것은 연인과 부부 사이 즉, 남녀 간의 애정에 국한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미운 짓을 해서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는가? 배우자나 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랑의 본질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다. 남녀 사랑이든, 불쌍한 자를 돕는 사랑이든 결국은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 쏠리게 마련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랑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만한 좋은 점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가? 정말로 그분의 심정이 기뻐서 춤 출 정도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측면이라곤 스스로 눈을 닦고 찾으려 해도 솔직히 없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감정이 격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을 뿐이다. 하늘에서 눈동자 같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물론 심령까지 꿰뚫어보시고 있다. 또 그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자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버리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명령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그분은 의지하며 순종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뭐라 하든 아무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그분이 싫어하는 짓을 마음 놓고 자행하게 된 것이다. 그분을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열애 중일 때는 내가 싫어해도 상대가 좋다면 그대로 따르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 싫던 것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듯이 말이다.

본문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었거나, 유대인의 경우 현저히 줄었거나 엉뚱하고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그 관심을 겉으로 완전하게 표출했다.

사랑과 조급증

사랑의 본질은 관심이며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웃이든 배우자든 섬기는 일이다. 관심이 사랑의 본질이라면 조급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느긋하게 잘 참을 줄 아는 자가 관심을 오래 더 깊이 가지고 또 그래서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실제로 그렇다. 절교나 이혼을 선불리 하지 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성경은 사랑의 본질을 분명히 조급증의 반대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랑에는 어떤 기교도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선 순수한 진심보다도 조급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사랑을 설명하면서 참는다는 표현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셋이다. 총 열다섯 중에 겨우 셋이기에 사랑의 큰 특징일뿐 본질까지는 아니라고 간주해선 안 된다. 우선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쳤다. 처음과 끝이 참는 것이면 그 전부가 참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열다섯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 내용이 절반이 넘는 여덟이다. 아니 하려면 참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해야 한다는 긍정적 내용 일곱 중에서도 참는 것 셋을 빼면 넷인데, 그 중에 “모든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믿는 것과 바라는 것 둘이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려면 당연히 오래 참아야 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 믿어지려면 오래 견뎌야 하며, 바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도 계속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다.

직접 참으라는 표현과 참는다는 뜻이 내포된 "아니하며"와 "모든"이 붙은 것을 빼고 나면 사랑의 특성 15 가지 중에 둘 밖에 남지 않는다.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 둘도 곰곰이 따져보라. 참지 않고 과연 어떻게 온유해지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온유란 참는 것의 다른 표현이거나 최소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또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 모든 죄악의 시험과 유혹을 참고 이겨내야 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열다섯 모두가 참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사랑의 본질이 참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일차적으로 참아야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상대다.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참아야 하며, 아니 바로 그런 결점들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사람으로 그런 허물과 잘못을 범하게 만든 이 세상의 모순, 왜곡, 갈등에 대해서도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참아야 한다. 사람이든 일에든 조급하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인생이기에 사랑하지 못하면 즉, 조급하면 가장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열정이나 의지가 받혀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인내심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급증이 생기는 이유는 관심이 끊겼기 때문이다. 관심은 반드시 온전한 관계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한 관심을 끊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신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큰 이유는 자기 몸에서 났기 때문이다. 도무지 그 관계는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결국 관심이란 내 쪽의 상황, 감정, 믿음, 소망, 열정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관심마저 끊게 되거나 자동으로 끊긴다. 남녀 관계는 감정이 고양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관계의 지속여부도 결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랑의 관계는 오히려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소원과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쏟게 된다. 관심을 가지다 보면, 반대로 관심을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는 법이다.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해라.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그 본을 보이셨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스스로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 그 후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도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용서해주어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이다. 숫자로는 490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니까 491 번째는 용서 안 해주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선 세 번만 참아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수십 배 더 오래 참으라는 것도 아니다. 490 번의 용서란 우리 모두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숫자다.

우선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가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같은 잘못을 70 번 저질러도 용서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일곱 개의 다른 잘못을 범해도 용서하라는 것이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 아니다. 일곱 번 용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일흔 번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다. 7 이나 10 이나 완전 숫자다. 딱 찬 숫자다. 무조건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문자 그대로 490 번까지 용서해주다가 491 번째 복수했으면 남는 것은 복수이지 용서가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 황혼 이혼이 유행하고 있다. 금술 좋게 50 년이나 해로하다가 51 년 쯤 그동안 참고 산 것이 억울하다고 서로 비방하며 이혼한다.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한 것인가 아닌가?

참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신자들은 의지력과 결단력에 따르는 강한 믿음이라고 믿는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내가 진짜 인내 되게 하려면 끝까지 가야 한다.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까지 가야 그야말로 참 인내다. 그러지 않으면 인내가 결코 아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중간 중간에 갈등과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했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참 인내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결단, 의지, 끈기가 아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정말로 기꺼이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 내지 의사다. 관계를 이어갈 요량이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관심을 가지면 상대의 허물과 잘못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도 된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생겨야만 참 용서가 된다. 신자니까 무조건 종교적 도덕적 의무감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용서 자체가 갖는 힘 때문에 참 용서로 이끌 수는 있다. 그러나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는 못한다.

솔직히 예수님이 말하는 490 번의 용서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우리 체질이 진토 같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계명을 주실 리가 없다. 신자는 혼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초대교회 때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한 평범한 신자들도 아마 끝까지 용서했을 것이다. 자기들을 죽음에 넘기운 자나, 직접 사형 명령을 내린 자를 원망, 분노, 저주하며 죽지 않았을 것이다. 성령의 평강과 위로가 가슴에 가득 차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주님이 그들을 천국 입성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토록 하신 이유다.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

신자는 정말 온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하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고 선언했지 않는가? 언뜻 율법적이고 너무 독단적인 선언 같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5,16)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령의 간섭을 통해 신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를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신자다. 신자도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

바울도 동일하게 선포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신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의 사슬 아래 묶일 필요 없다. 두려움은 자연히 조급증을 유발한다. 조급증은 끝까지 참게 하지 못한다. 요컨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그 인생에 실패만 남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6)고 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는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만이 영존한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29 절)이라고 이어서 설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소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믿음과 소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실현되기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며 또 천국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도 사랑이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인간은 사랑하는 힘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다. 나아가 너무나 미워서 양갓음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원수라도 성령의 내 영을 깨끗이 씻음과 새롭게 함으로 용서하고 사랑까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를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2-14)

재차 강조하지만 성령의 인도로 참 사랑을 하라고 해서 너무 심오하고 신령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예컨대 노년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주님 안에서 만난 배우자와 비록 자주 싸우고 심지어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참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노년에 새 인생을 출발한다고 하지만 그 전의 6~70 년의 인생은 실패요 허비했다는 실토밖에 안 된다. 대신에 아름답고 복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신자는 성령 안에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소지한 자다. 당장에 아주 잘 섬길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다. 그들에게 어떤 결점과 하자가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힘이다. 그 힘은 또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성령이 심어주는 소원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당장 사랑부터 하려들지 말고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참는 것이 최선이며 그러면 관심과 사랑은 따라오게 된다. 이길 외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없다.

주께 하듯 사랑하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4:10,11)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급함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랑의 본질이 끝까지 참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는커녕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참아내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도 여전히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 성령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온전한 사랑을 평생 못해보고 끝날 수 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단 한명을,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대상으로 해서도 말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성경은 아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권면이 단지 종교적 구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표를 아예 최대치로 잡아 노력하다 보면 그 성과도 비례해서 좋아질 것이라든지, 혹은 그런 구호를 반복하면 어쨌든 동기부여는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다. 주님은 새 계명으로 반복해서 권한다, 아니 명령한다.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지간한 정도라야지, 정말 당신 말씀에서 일점일획도 빠지지 않고 일흔 번씩 일곱 번 그대로 용서하신 분이다. 아니 우리 지은 죄가 고작 그뿐이라. 도무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어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다 용서 받았다.

그것도 당신께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수치까지 다 감당하시고 말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대신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 그럼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한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본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마땅하다는 의미는 간단히 비유컨대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으로 꼭 행해야 할 바다. 그마저 못하거나 안하면 아예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이 그 정의(定意)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자가 필수적으로 행할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상대에게만 희생과 수고로 끝낼 것이 아니다.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또 관계를 맺는 모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그래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 처해도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원래 사랑에는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동일한 한 사람이 베푸는 사랑에 어떤 이유나 상황이 되었든 우열이 생기면 이미 참 사랑이 아니다. 최고 정성을 들인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랑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이다. 참 사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끝까지 참는 것"이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두 계명이라고 하셨다.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죽기까지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체념하고 말 것인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지, 경비, 노력,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그것으로 그만인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본질

주님이 우리에게 했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주께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질과 양적으로 최고 최선의 사랑만 하려 든다. 그렇게 해선 금방 지쳐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직 신자다운 사랑을 못한 것처럼 여겨져 죄책감 내지 아쉬움만 늘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목숨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홈리스가 동전 하나 달라고 해도 지갑을 움켜쥐기 바쁜 우리로선 너무 요원한 일이다.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좀 더 고급화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 구원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대로 괜찮거나 최선의 방도가 되는 법은 절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자신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는 길 외에 구원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되 단순히 남들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사랑을 해야 한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도 단지 질과 양으로 따져서 최고 사랑을 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랑이 나쁘거나 해선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질적 양적으로 최고 최선의 사랑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역사상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랑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최고 최선의 사랑이 된 것이다.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랑을 하려면 세상과 전혀 다른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

세상에도 자기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의인은 있다. 최근에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빈민촌에 들어가 봉사하는 의사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았다. 오래 전에 일본의 지하철에서 생판 모르는 일본인을 구하고 대신 깔려 죽은 한국 유학생도 있었지 않는가? 사랑을 질과 양으로만 따진다면 불신자들에게도 최고의 사랑은 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6-8)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드물긴 해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그것도 죄인이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도 그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한다. 한 죄인의 죄를 씻겨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랑이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자를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랑이었다.

신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 다른 이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알게 해주어야 한다. 현실적 도움을 등한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행하되 반드시 죄를 씻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데 유용한 도움이어야 한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다. 모든 이들을 다 사랑으로 돌봐주지는 않았다. 때로는 현실적 도움만 바라는 이들을 오히려 멀리 하셨다. 거기다 치유나 용서를 베푸시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목적으로만 모든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신자의 사랑도 주님의 바로 이런 사랑과 닮을 때에만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진다.

신자가 받은 직책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15)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신자라면 구원 이후에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단지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도 무한한 사랑이요, 구원 이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도 그분의 동일한 무한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신자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다.

거기다 어떤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의미도 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주위에 증거하고 또 나눠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다. 또 바로 그래서 신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7-19)

신자의 이웃 사랑의 초점은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방식에 있다. 죄에서 돌이키는 복음으로써 그들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해야 한다.

또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은 신자는 화목의 직책을 맡았기에 구원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려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16 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16 절)

흔히들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빛과 소금으로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라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자가 자동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머리에 그려낸다.

정작 성경은 그 삶을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너무 간단하다보니 싱겁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16 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14,15 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부연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경비와 시간이 들더라도 감내하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는데 단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으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은?

지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체대로 알았더라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아니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겐 그분의 사랑을 받을만한 건더기라곤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육체대로만 알았었다. 도무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사 53;2) 그래서 멸시와 간고와 질고만 그에게 몽땅 쏟아 부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젠 육체대로 하자면 우리는 백 번 죽어 마땅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그 죄악조차 육체대로 보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시발점은 육체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 또한 이제부터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전에는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도 그렇게 봤다. 신자가 된 후에 가장 바뀐 사항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된 후에 말아야 할 화목의 직분이나,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 바탕이 바로 육체대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앞선 글들에서 사랑의 본질은 관심이라고 했다. 또 온전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장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이다.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불신자보다 수십 배의 사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루아침에 변한 것도 아니다. 단지 육체대로 하자면 자기야말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함을 입게 된 것이다. 그분의 육체대로 보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분의 그런 사랑 가운데 계속 강하게 붙들려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육체대로만 따져서 상벌을 준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나아가 참 부모라고 말할 수도 없다. 참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심한 핸디캡으로 태어났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이다. 믿은 후의 신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위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로 각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니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직책을 맡은 성도는 더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므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본문은 그와 다른, 정확하게는 반대되는 측면을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할만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에게서 사랑할만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모두가 죄인인지라 그럴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제고(提高)하라고 배웠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움을 제대로 알라고 한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다른 이를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기 이전에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선 도무지 육체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부터 철저히 직시(直視)해야 한다. 우선 자기에 대해서부터 그래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절감해야 한다. 또 그래야만 다른 모든 이들도 육체대로만 보지 않게 된다.

흔히들 점수로 치면 자기가 최고로 낮기 때문에 감히 남들을 자기와 견주어서 멸시할 수 없다고 여긴다. 물론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다른 이들 모두가 너무나 불쌍한 존재임을 실감해야 한다. 그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열이 나뉘져 더 좋고 더 싫은 점이 드러난다면 자기도 모르게 육체대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아무래도 더 좋은 자를 더 좋게 여기게 된다는 뜻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 후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육체대로 보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의인이 되거나 덜한 죄인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이의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비기독교적 사랑으로 변질될 뿐이다.

성도의 사랑은?

이런 맥락에서 조급증의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육체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급증의 핵심이다. 각자의 외모, 건강, 신체, 가문, 학벌, 재정, 권세, 지성 등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지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 속으로 점수를 매기게 마련이다. 또 그에 따라 사랑과 섬김의 세기가 정해진다. 사랑할만한 자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랑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따라 이뤄진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연약하며 죄에 여전히 찌들은 인간으로선, 어지간히 믿음이 좋아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에 어떤 모습이든 사랑 가운데도 죄는 묻어 나온다는 것이다. 죄인끼리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 하여서 의지적으로 참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해도, 상대를 육체대로 보는 순간 곧바로 죄에 물든 하자 있는 사랑으로 바뀐다.

육체대로 보지 않기 위해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칫 의무적 형식적 사랑으로 흐르게 된다. 상대의 인간적 장단점을 보기 이전에 상대도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확신을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이 지금 나와 똑 같은 죄인인 상대를 대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죽기까지 변함없는 이 인식의 바탕에서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비록 나에게 상대를 사랑할 소망은 있어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다. 또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부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시도 견디지 못하기에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부터 받기를 열망하게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음을 알게 된다.

예컨대 남편이나 아내도 육체대로 보자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배우자 또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는 나와 똑 같은 불쌍한 존재임을 확신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해주는 것 이전에 그 스스로 주님의 사랑부터 알고 받아 누려야 한다고 깨닫게 된다. 내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배우자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매개체로 하여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화평이 되어서 둘 사이의 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부부를 각자의 사랑이 아닌 주님만의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게 된다.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세상 사람의 사랑도 실은 안타깝고 불쌍한데서 출발한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 단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을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돈과 건강 등에 부족해 찢찢 매는 자를 도와준다. 비록 인격적 감정적으로 상처 받은 것까지도 보상하고 사랑해주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또한 인간의 지정의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차원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죄라는 차원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연관 지어선 전혀 생각할 줄 모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다르다. 모든 인간에게는 현실적 고난을 없애거나 감하는 것 이전에 그 영혼의 피폐함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는 일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간섭으로만 이뤄짐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고, 말,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미치도록 소원하는 것이다. 도와주고 사랑하러 나서기 전에 간절히 주님께 그런 사랑을 자신을 통해 베풀어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소망이 신자에게 있다면, 하늘의 영적 차원에서 땅으로 쏟아부어주는 참 사랑이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무엇보다도 주님만의 방식과 때로 신비하게 그 상대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최근 TV 프로에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나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 유행인 것 같다. 부부간에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뜻이다. 신자에게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그들의 윤회(輪回) 사상을 옳다고 여겨선 안 된다는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묶여 있다. 다른 말로 모든 이를 육체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에도 지금 배우자의 육체대로의 상황이 다시 결혼하고 싶은 조건에 합당한지 묻는 것이다.

반면에 신자는 지금의 배우자와 천국에까지 동행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육체대로 하자면 서로 온갖 하자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주님이 그랬듯이 오히려 그 허물 때문에 더 사랑, 최소한 더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겨야 한다.

나아가 천국에 가서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인 지금부터도 상대를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천국 가선 후회와 미련 밖에 남지 않을 것 아닌가? 이 땅에서부터 죄인 된 신분으로서 같은 죄인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느냐 여부다. 신자니까 불신자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주님의 긍휼로만 항상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遺業)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후 3:7)

베드로 사도는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한다. “지식”은 어떤 사본에는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아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더욱 사랑해야 함도 아주 지당하다. 그런데 사도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했다. 단순히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마땅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함께 갈 자로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이 흥미롭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내는 물론 주위 성도들을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나아가 불신자들에게는 그 유업을 소개하고 초청할 자라는 바탕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 인식 없이 기도를 하면 막히어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는 주를 위해서 살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또 그런 바탕에서 모든 기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보아야 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도 끝까지 말이다. 그렇다고 당장에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싫고 미울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반드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또 그래야만 비로소 실제적인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나도 아주 불쌍한 죄인이고 너도 너무나 안타까운 죄인이라는 인식 아래 상대를 보아야 한다. 단순히 호기심과 흥미를 갖는 관심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긍휼이

바탕이 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자의 관심은 이해하는 수준에만 머물 수가 많지만, 후자의 관심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신자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최고로 좋아지고 또 그래서 그저 모든 것을 베풀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랑을 하려면 정말로 못한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비유컨대 모두를 핸디캡이나. 갓 태어난 아이로 대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짓을 해도 두고 봐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상대를 두고 자기감정을 건드렸다고, 제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받은 은혜를 보상하지도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그런 자가 바로 핸디캡이요 갓난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핸디캡을 보면 누구나 불쌍하고 안쓰러워 저절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가? 신자의 사랑이 질과 양으로 최고가 아니라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에 사랑했으며 또 어떤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답은 자명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분에게 갓난 애, 핸디캡, 그것도 나쁜 짓만 일삼아 단 한시도 골치 썩지 않는 일이 없는 그런 망나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신자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아니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조급증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죄인가 말이다.

너무나 느긋하신 예수님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未明)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막 1:32-39)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다. 그럴 수 있었던 첫째 까닭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셨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그분의 본을 따라 살기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신자더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하나님도 당신께서 거룩하고 온전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수차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당치나 한 말인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신적인 능력을 매번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거나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칠 때는 신적 권능을 확실하게 내보이셨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는 그야말로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분이 인간으로 사는 동안 우리처럼 많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분도 시공간에 제한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었으면서도, 인간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그분 안에서 상호 모순 충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역사한 것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만의 신비와 섭리다.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각각에 대해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점이다. 정말로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살았다. 우리 또한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그분대로 살 수 있음을 완전한 선례(先例)로 보여주시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적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본문처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하나님으로써의 권능만 드러내려면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는가?

거기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조급증도 완벽하게 다스렸다. 그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재촉하지도 않았고, 말세에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기질적 조급증은 아예 없었으며, 또 조급증으로 인해 사랑하는데 실패하지도 않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조급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재촉해도 카이로스의 때에만 행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야, 그것도 열두 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아무 저항 없이 유대 관원들이 당신을 체포해 가도록 허락하셨다. 3 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께서 성육신한 것은 물론 이 땅에서 베푸는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국복음의 내용과 또 어떻게 해야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등등을 제자들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만약 공생애를 시작하자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지금의 신약성경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분 또한 단지 천사나 마술사로만 기억되었을 것 아닌가?

요컨대 그분은 인간 예수로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온전히 때가 차면 오직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셨던 것이다. 말하자면 신자가 주님을 닮아 가장 그분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로운 역사는 물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을 가장 크게 훼방하는 조급증을 없애는 것이다.

일부러 늦장 부린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춘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것 같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우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그렇지 않은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 수천 년이 흘렀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죄악으로 온갖 힘든 일을 겪은 후에도 당신의 계시는 사백년이나 침묵했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때가 차매”(갈 4:4)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이다. 그전에 왔다면 하나님마저 조급증을 부렸다는 의미가 된다.

거기다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것 같은 경우도 분명 있었다. 예컨대, 가나의 혼인 잔치 때에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곧바로 이적을 베풀지 않았고(요 2:1-12),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는 나홀이나 지체했고(요 11 장),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갈 때도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다.(눅 8:41-56)

그렇게 늦장을 부려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셨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죽은 지 나홀이나 지난 후에 되살리어 더더욱 당신의 권능을 여실하게 드러내보였다. 마치 액션영화의 히어로들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 단번에 악당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것 같은 모습이다. 어떤 어려움도 손쉽게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이 재촉할수록 짐짓 늦장 부리면 자신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예수의 형제들이 이와 비슷한 몰이해(沒理解)에서 그를 비아냥거린 적이 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요 7:1-6).

초막절이 다가와 형제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한 이유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가만히 묻혀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한다.

주인공으로써 일부러 늦게 나타나 더 생색을 내라고 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능력을 보이려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들도 그를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기들 형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지는 전혀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 명성을 높이려는 줄 오해했던 것이다.

바로 이때도 주님은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것 같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8,9 절) 그렇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나면서 소경인 자도 고치셨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완벽한 때와 장소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독촉한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일부러 늦춘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제한된 지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이다.

드러난 영광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이적은 오직 당신의 당신 됨을 증거하려는 뜻이었다. 당신이 성육신한 하나님 본체라는 정체성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닌 이중적 정체성 가운데 신적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성과 인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이 땅에 인자로 와있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인성 부분 즉, 인간적 명예를 높이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었겠는가?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면 된다. 그것도 그 즉시로 그 현장에서 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계속 유대인들을 먹여주고, 또 열두 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로마군을 물리쳐서 솔로몬 왕 때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재현해 주면 된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다고 만류했을 때에도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야단치는 대신에 참으로 의리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모든 현실적 요구는, 심지어 제자들의 것마저 외면했다. 인간 예수는 철저하게 멸시와 핍박을 받은 길을 택하였다. 반면에 구세주 하나님 예수만 드러나게 했다. 그것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모습으로만 말이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에게 대답한 내용을 보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명절은 일 년에 몇 차례 정해져 있는데 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 형제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때와 무관한 때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인간들의) 때는 늘 준비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모르는 이는, 아는 이도 때로는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의 때를 자기가 정한다. 바로 앞의 글에서 설명한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범사를 외양으로만 판단하여 살아가는 방식이다. 구태여 하나님께 물어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때에 그러지 못하면 조급증이 앞선다. 또 그 조급증은 곧바로 다른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인자로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려면 손쉽게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초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동생들의 요구처럼 자신을 드러내려면 가능한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이 시작하자마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켜 보여주면 되었다. 사람들에게 조급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면 그만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한국에선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그 재원 마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허리띠 졸라매며 먼 장래를 내다보자고 했다간 표만 떨어진다. 선거에 뽐혀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이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나 조급증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너희 때는 늘 있다고 하면서(6 절)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답한(8 절) 중간에 한 말씀을 더 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7 절)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비아냥거린 것을 계기로 세상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경고를 발하고 있다. 단순히 그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아무 때나 무조건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다. 성격이 불같은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 조급증 증세를 드러내는 이들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때를 순종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모든 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대해서도 외모만 보고선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으니 신성모독 죄로 죽이려 조급하게 덤비는 유대관원들이 악한 것이다.

예수님은 조급증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님 예수는 우리가 본받지 못하지만 인간 예수는 따를 수 있다. 특별히 본받아야 할 바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다. 조급증을 없애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비결도 본문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조급증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일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마도 밤늦게 자리에 들었고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를 만나러 다시 모였는가 보다. 아마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한 환자나 귀신들린 자들이 남았던가 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어서 빨리 기도를 마치고 동네에 와서 사역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삼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다. 당신의 말씀대로 머리 둘 곳도 없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일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로마 원형경기장의 관중 수만큼 모였지 않는가? 역사상 최초의 초대형 복음전도 집회였다.

너무 바쁘다 못해 지금 같이 기도할 짬도 얻지 못할 판이었다. 그분은 항상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갈증, 허망, 혼돈, 모순, 추함, 더러움, 고집, 완악, 교만, 위선, 거짓 등에 휩싸여 지낸 셈이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을 들으며 살아가야만 했다. 실제로 그 모든 소음들을 평강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당신부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았다. 오직 혼자만 있는 곳이다. 제자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다.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다. 그 모든 소음은 당신의 등 뒤에,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그 동네 안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오직 당신 혼자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채로 성부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면을 위해 기도처로 가신 것이다.

바꿔 말해 그분은 세상의 소음을 듣고 와서 일일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오늘도 당신의 주위에 모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또 모든 치료와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간구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당신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더 우선을 두었다는 뜻이다.

기도의 중점을 세상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만 두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지정한 때에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당신의 현실적 문제를 듣고 나와서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음 중에 휩싸인 우리의 기도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 중에도 세상의 소음에 싸여서 어쩔 줄을 모른다. 기도처마저 한적한 곳이 아니다. 기도굴이나 독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기도자의 심령에 온갖 세상의 잡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딴 생각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가 간구할 일들만 즉, 세상 속에서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나와서 따발총처럼 쏟아놓고는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만족한다는 것이다. 소음을 차단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소음을 그대로 옮기려 든다.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 독방에 들어가 TV 나 핸드폰 다 끄고 기도했어도 한적한 곳이 아니다. 세상과 단절하고서 그분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방식으로 그분과 교제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세상의 소음을 없애고 안일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세상

소음 속으로 끌어넣으려 든다. 세상 소음을 탈출해 하늘나라의 고요 가운데로 들어갈 의도가 없다. 세상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과와는 정반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시끄러운 곳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였다. 조급증을 없애는 기도였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기 전부터 실은 그분에게 조급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라면 틀림없이 어저께 다 고쳐주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는 천국 복음에 대해 더 듣고 싶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 전날 저녁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보기엔 메시아로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바쁜 일들이 눈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인간이 아무리 아등바등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만 손해이지 않는가?

세상의 잡다한 일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때로는 출근 길에 잠시 교회에 나와 아주 급한 일만 허급지급 간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그분과만 둘이서 한적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주변 상황의 조용함이 아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자의 영혼에 세상 소음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 또 찬양과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에 평강으로 채울 필요도 있다. 요체는 세상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분과 만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조급증을 없애고서 그분의 때만 기다리는 자세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기도자는 하나님에게 매번 빗 갇아라고 독촉하는 빗쟁이가 될 뿐이다. 그럼 하나님도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런 빗쟁이들을 피해 다니지 않겠는가? 가만히 따져 보라. 누가 누구에게 빗을 졌는가? 누가 빗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며 누가 갇아야 할 책무가 있는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가?

너무나 조급하신 예수님

조급증에 대해 신자가 정작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예수님이 항상 느긋하셨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조급하게 행동하신 적도 많았다. 그것도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이다. 성전의 장사치와 환전상들을 쫓아낸 사건이나,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야단 친 것들을 보면 항상 온유한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그분의 조급하심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에서 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 3 일이면 된다.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않은 유대인들은 둘러서 옛새 길을 가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로 질러서 갈릴리로 행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려는 조급증이 아니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려는 뜻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 4:34-38)

주님은 영적인 추수에 관해선 단 한시도 지체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양식은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영적 평강이 완전히 고갈된 한 여인을 구원하여서, 그녀로 하여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몰려 나왔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추수하라고 명했다.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요, 또 마음 밭에 복음의 열매가 이미 생긴 그 여인이 자신의 씨앗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뿌렸던 것이다. 이런 추수를 위해 넉 달이든 하루든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이마다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의 경우에도 예수님은 기도할 짬도 없을 만큼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렸다. 분명히 그 동네에서 더 사역할 일들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 둘만의 교제를 마치고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

그 동네 사람들의 당장의 급한 사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물론 그 동네는 전날 밤에 복음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었다. 치유는 그 목적을 이루는 보조 수단에 불과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가 어제 못 다한 치유와 도움을 달라는 것인 줄 당신께선 이미 아셨던 것이다. 대신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선 그분은 너무나 조급했다. 한 치의 주저함이나 나태함이라곤 없었다.

주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 전파에 조급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고 열매 맺는 일에 비유하면서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막 4:29)고 했다.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일에는 절대 느긋하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주님의 조급증이 드러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실은 동일한 이유와 근거에 기인하기에 동일한 조급증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34-37 & 42)

종말에 대한 조급증이다. 오늘 내일 날짜를 정할만큼 당장에 임박했다는 것이 아니다 언제인지 모르기에 절대 여유 부리고 있을 짬이 없다는 면에서 조급증이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착하고 악한 두 종의 비유를 들어서 그 조급증을 풀어 설명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48 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놀다간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律)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51 절)고 엄중히 경고했다.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뜻이 아니다. 신자더러 구원 받은 보상으로 열심히 전도하라는 뜻도 아니다. 주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시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당신의 그런 큰 사랑과 안타까움이 복음 전도와 종말에 대한 경고에는 단 한 치의 지체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이 아니고는 언제나 느긋함으로 대하셨다. 아침부터 당신을 찾는 이들을 당신의 등 뒤에 그대로 버려둔 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유일한 이유다. 그분의 이런 조급증과 동시에 느긋함이 바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닮아야 할 부분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39,40)

우리의 조급증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 조급증을 없앨 수 있는가? 기도하면 되는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개인적 교제만 나누면 되는가? 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단지 기도에만 집중하면 자칫 본질을 놓치고 기도라는 방법론에 머무를 수 있다. 스스로 경건해지는 영적 자기도취에 빠질 수 있다. 신자가 경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듯이 구원 후에 신자로선 너무나 마땅히 할 바다.

그 대신에 주님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조급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느긋해져야 한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가 꼭 해야만 하는 그분의 일을 깨닫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행하면 된다. 그 일을 행하는 완급(緩急)의 템포는 하나님이 정할 뿐이다. 거기다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신자에게 발생하는 나머지 일들은 당연히 그분이 다 책임져 줄 것 아닌가?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을 일단은 차단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자기에게 닥친 문제, 질병, 환난, 상처 등을 주님의 치유를 받아 해결하려고만 기도하면 그 전부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은 자신의 소원하는 바대로 그냥 조용히 아뢰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기도에서 더 중요한 사항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그 문제들 안에서 신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을 깨달아 행하는 것은 신자의 몫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구세주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원했던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자신의 안일과 형통만 구하면 세상에서 자기만 앞세우는 일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겉모습이 어떻게 되던 오직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만 드러나길 소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조급해지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 목표인데, 어찌 초조하고 염려할 필요나 이유가 있겠는가?

요컨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는 결코 조급해질 수 없다. 무엇보다 모든 일을 그분이 알아서 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아니 현재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급해지겠는가? 엄밀히 말해 조급증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들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에 묶여 급급하기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신자임에도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해결 받겠다면 마찬가지로 조급해진다. 빛진 자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진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평생 못해 보고, 아니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일생이 끝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뿐이다.

조급증을 없애는 최고 비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부지런함과 분주함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셨기에 이 땅에서 공사역을 하는 동안에 조금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 미혹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만은 아주 서둘렀다. 서둘렀다고 해서 앞뒤 구분 없이 허둥지둥 급하게 굴었다는 뜻은 아니다. 전도할 일은 넘치도록 많았고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아주 부지런했다.

일이 많아 바쁜 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주 부지런한 것과 그저 분주한 것이다. 부지런함은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서 적극성, 능동성, 행동성 등이 함께 따라 온다.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미혹된 영혼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충만했었기에 구원을 주어야 할 자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라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저 분주한 것은 그 반대다. 꼭 할 필요가 없으며 썩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 데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다. 진정성이 생기지 않기에 즉,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고 여기기에 일단은 뒤로 미루고 본다. 자연히 할 일이 눈앞에 많이 쌓여가고 그저 마음만 분주하다가 차츰 초조 불안으로 도진다.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꼭 해야 할 일 한두 가지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될 잡다한 일에 신경이 쓰여 오히려 그 중요한 일마저 하지 못하느냐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후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바빠 그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듯이 말이다.(눅 10:38-42)

한두 가지 일만 한다고 해서 한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깊이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행해야 하기에 더 바쁘다. 예수님도 때로는, 아니 공사역 3년 내내 아주 바빴다. 그럼에도 그분의 분주함은 우리의 분주함과 전혀 달랐다.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았어도 전혀 당황, 혼돈, 초조, 불안 없이 모든

일의 완급을 조정하며 담담히 처리해 나갔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신이 그 일의 전적이고도 완전한 주관자였지 일이 당신을 제약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했고 인간인 우리로선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그랬던 것이다. 그분이 인간이셨던 가장 큰 증거로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지 않는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셨고 사역할 때도 100% 인간인 상태로 행하셨다.

말하자면 병자를 초자연적 이적으로 치유할 때나 죄인을 구원해 줄 때도 한 사람씩 만나서 그랬다는 뜻이다. 만약 신적 권능으로만 사역하셨다면 이스라엘 안에 고쳐 주어야 할 모든 병자를, 또 구원해 주어야 할 모든 죄인을 구태여 만나지 않고 당신이 기거하는 방 안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럴 수 있었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직접 병자를 만나지 않고 도중에 말씀으로 고쳤듯이 말이다.(눅 7:10, 마 8:13)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일이 만나 따뜻한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구원이나 치유를 행하셨다. 그럼에도 그 치유나 구원은 백 프로 신적 권능이 아니고는 행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구원과 치유와 함께 인격적 교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진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분이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었던 확실한 증거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분의 인간적 모습은 신자들이 충분히 본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경우에 비춰보면 조급증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처럼 그저 분주한 상태에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부지런해지는 것인데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서 행한 사역의 원리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한다면 그 일의 과정과 결과는 당연히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는가? 또 그럼 인간 쪽에서 조급해질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는가?

당신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신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신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만약 당신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나마 그렇게 대답하는 신자는 수준이 나은 편이다. 그렇게 할 시도도 하지 않았거나 아예 그런 소망도 갖지 않고 있는 신자도 아주 많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아주 생소할 수 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마저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이런 부류의 신자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조금 윤리적으로 반성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회의 멤버일 뿐이다. 십자가 복음은 금시초문이고 잘 믿으면 복 준다는 말 밖에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만 하시지 신자가 그분의 일을 대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다.

교회 멤버 수준에 머물러서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자는 성령의 간섭으로 구원부터 받아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여 거듭나는 일이 급선무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직 모르겠다는 자들이다. 이 또한 참으로 한심하고 난감한 일이다. 그들의 영적 게으름이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 그들에게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어렵다는 뜻도 아니다. 지금껏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으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는 뜻이다.

흔히들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대한 뜻과 계획을 그분이 심어주신 소명, 그분이 보여주신 비전 등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자나 듣는 자 공(共)히 사실은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소명, 비전, 꿈, 소망, 계획 등이 신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란 의미로 그저 뒤죽박죽 적용되고 있다.

예수를 믿고 난 직후에는 누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진다. 문제는 아무리 궁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딱 부러지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비전, 계획 등을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런 신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다. 미래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가? 결코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껏 교회에서 배워왔던 바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결정하라 혹은 결정해도 된다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소명과 비전을 제대로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자칫 오해는 말아야 한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론 모든 일에 신자에게 백 프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일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확하게 코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생을 가도 그분의 직접적인 계시는 한두 번 받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자신이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신자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숙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해도 된다.

신자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신자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앓고 일어섬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아신다. 나아가 심령의 숨겨진 죄악이나 혼자만의 상처와 애통함도 다 아신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 139:2-4)

따라서 신자가 혼자서 판단, 결정, 계획, 시행하는 일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이유와 배경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자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막으시고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신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4:12 & 16:9)

또 신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이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안식으로 이끄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2,3) 거기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대신 해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자가 스스로 경영한 대로 행하다가 범하는 실수나 잘못만 뒤치다꺼리 하는 분처럼 여기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은 어디까지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춘 표현이다. 신자더러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 교제, 동행하라는 권면의 뜻이다. 인간이 행하는 것을 뒤에서 가만 두고 보시다가 잘못하면 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신자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셔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신자의 계획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다. 위에서 인용한 성경 본문에도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가? 사람이 택한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간이 택한 그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길로 인도한다. 신자는 마땅히 빌 바도 모른다지

않는가? 마땅히 빌 바는 자기가 앞으로 가야할 목적지다. 신자가 모르니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주실 수밖에 없다.

결국 거꾸로 따지면 하나님은 이미 신자가 갈 길을 다 정해 놓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인간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만 신자는 그분의 길을 전혀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또 벗어날 수 없다. 신자가 자유의지를 사용해 걸어가는 길 모두가 그분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며 완벽한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서로 모순, 상충, 이탈, 반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단순히 전지전능한 것을 넘어서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다. 미리 알기에 단순히 수호천사처럼 나쁜 일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나빠 보이는 일도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일생이 다 그러하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경우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자기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안에서 이뤄진 일이고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한 그분의 뜻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그러나 당장 아브라함의 경우만 해도 갈바 몰랐으나 무조건 떠났지 않는가? 바꿔 말해 그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넘치는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본인의 확실한 판단이 선행된 것이다. 요셉도 꿈을 꾸는 것, 형제들에게 자랑한 것,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라도 애굽의 노예와 감옥살이를 자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요컨대 그들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아는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갈 바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고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게 했을 뿐이다. 지금 내 스스로가 선택 결정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으리라 확신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대로 따른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거나 그와 방불한 자다. 아니면 순종 자체가 안 된다. 너무나 험난한 굴곡진 인생이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선뜻 나설 바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는가?

소명과 비전이란?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나 타종교인이나, 심지어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격언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들도 스스로 자기가 결정 시행한 후에 그 성패는 하늘의 뜻에 맡기지 않는가? 또 만약 그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들의 판단과 시행에 상충이 없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따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불려나온 자다. 한마디로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그분의 종이다. 말하자면 신자가 무조건 자기 지정의로 판단 시행하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야 한다.

혹시 앞에서 말한 내용과 모순처럼 여겨지는가? 이 또한 아니다. 신자의 경우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은 대로 이끄시니까 제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말해 놓았는데 신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조금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소명이다. 한자로는 '부른다'는 '소'(召)와 '명령을 내린다'는 '명'(命)이 합쳐진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를 불려내어서 따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친구약 성경을

통 털어 이런 우리말 표현이 없다. 대신에 '부르심'(calling)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한 개인이 따로 선택되어졌다는 뜻이다. 초대되거나(invited), 구별되었다는(separated) 의미다. 특정한 임무가 따로 맡겨진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모든 신자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져 나온(called-out) 자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살던 한 죄인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서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따로 빼어내셨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만들어 주셨다.

비록 신자의 육신은 세상 속에(within the world)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 영적 실체의 신분과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not of the world) 하나님께 속해졌다. 그래서 신자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거룩하다는 본질적 의미임, 성자(saints 고전 1:2)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후로 모든 신자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로 살펴 볼 것은 작금의 교회 행사나 설교마다 자주 등장하는 비전(vision)이라는 단어다. 이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뜻하는 용례로만 거의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방금 "본 것"(vision)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 수 있다.(마 17:9)

현재 통용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신자나 교회에 대한 큰 소명이라는 의미와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은 요엘서의 예언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visions)을 볼 것이며"(욥 2:28) 이 또한 원어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환상, 특별히 꿈을 통한 환상이다. 하나님이 상징이나 표상으로 보여주는 묵시(默示, apocalypse)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용하는 의미의 소명과 비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와 유사한 상황은 여러 번 나온다. 예컨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불러 나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라는 명을 받았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다.(사 6:8)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명을 받았고, 베드로는 꿈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구체적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각자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각자에게 각양 다른 모습(음성, 환상, 묵시 등)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구속에 대한 절대적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경으로 이미 완성되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을 선지자(구약)나 사도(신약)를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따로 불러내어 부여주실 하나님의 묵시(vision)는 더 이상 없다.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따로 불려나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각 개인별로 성경인물 같은 구속사에서의 필수적인 특정 임무를 따로 주시지는 않는다. 반면에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직분과 임무는 주셨다. 신자가 되는 순간 흔히 통용되는 의미의 소명과 비전은 이미 받았다. 따로 추가로 받을 소명과 비전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니까 즉, 제자는 또 제자를 양성하고 새로 된 제자도 제자이니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불러 나왔을 때 이미 복음을 세상 끝 날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소명을 받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5,18,19)

신자의 비전도 필연적으로 이 소명과 연관된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신자가 스스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이상(vision)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자가 이 소명을 충성되게 완수한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신자의 비전이다. 이 땅의 모든 종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이가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먼 오지로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에 따로 땅 끝이 없다.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가 땅 끝이다. 소외된 불쌍한 계층들이라면 모두가 주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어야 할 대상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자신 주위에, 특별히 등 뒤에 있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워하는 사이, 아니 원수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요컨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든 불신자가 다 땅 끝에 속한 자다.

또 선교사나 목사처럼 복음을 아주 전문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필요마저도 없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면 된다. 신자는 각처에서 죄악과 사망을 이겨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람들 앞에 풍기면 된다.(고후 2:14-17) 물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말로 쉽게 설명해 주면서 말이다.

세상 앞에 빛이 되려면 그 전에 신자부터 온전하고 거룩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엡 4:13)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여야 한다.(빌 4:8) 더욱 힘써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벧후 1:5-7)

따라서 이미 예수 믿은 신자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일생의 소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앎았다는 증거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들이 완악하게 거부하더라도 가능한 사람들끼리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모든 신자의 소명은 세상의 땅 끝까지, 끝 날까지(당연히 신자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의 의미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십자가로 미혹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직책과 말씀을 이미 받았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부터 온전한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새어나오는 거룩한 자로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 선교사는 물론 방금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

소명이 아니라 직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모든 신자가 이미 하나님께 구체적인 소명을 받고 있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껏 말한 내용을 어지간한 신자라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 이유는 소명과 직업을 혼동한 까닭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다.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 자신이 세대에서 택할 직업(vocation)일 뿐이다. 직업은 소명을 실현하는 수단 내지 통로이지 소명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이 직업과 연결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만 할 일이 하나 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는 전문사역자가 될 것인지, 세속의 직업을 가지면서 삶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일반 신자로 머물 것인지 여부다. 그런데 실은 이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사역자일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부르심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사역자라는 직업은 진리를 증거하기에 흑암의 세력의 훼방을 각오해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의 궁핍 내지 부족도 감내해야 하며,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도 많이 받아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머리 둘 곳 없이 좁고 험악한 길로 외롭게 걸어가야 한다. 보통의 결심과 각오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기에 신자가 되는 일반적인 세상과의 분리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완전한 갈라놓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분명한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따르게 마련이다. 비유컨대 이사야와 같은 calling 이다.

따라서 신자에게 그런 특별한 calling 이 없으면 그냥 일반 직업을, 그것도 아무 것이나 택하면 된다. 물론 신자가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calling 은 올 수 있다. 단지 언제 어떻게 그런 calling 이 들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주관하실 뿐이다.

어쨌든 전문사역자와 일반 신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받은 소명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소명은 동일한데 그 일을 전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순전히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에서만)으로 또 간접적으로 할 것인지를 차이일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모두가 만민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단지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세상살이와는 별개로 그 직분에만 전념할 자만 전문사역자라는 것이다.

전문사역자가 되겠다는 calling 이, 때로는 그 calling 이 신자 스스로의 서약과 헌신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없는 다음에는 어떤 신자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과 시행이라도 하나님의 궁극적, 절대적, 완벽한 계획과 상충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효과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가 많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에게 각자 특유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뛰어난 지성과 의지를 주셨고, 거기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성령님의 인도까지 따른다.

그렇다고 기도해서 꼭 직접적 응답을 받아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다. 기도해서 무엇보다 자기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냄새를 각처에 드러내도록 준비, 훈련, 헌신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재능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 된다. 최소한 조직폭력배나, 사기꾼이나, 술집 같이 명백히 비기독교적인 직업만 아니면 된다.

아직도 자기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계획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소명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없는 자다. 자신의 직업을 현실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넘치는 인도와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다. 자기 앞으로 행할 일의 성공을 하나님더러 미리 보장하라는 억지다. 직업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와 복주심이 근간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자의 재능, 실력, 노력, 진정성, 성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고 한다. 자기 직업이 무슨 상관인가? 또 착한 행실을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무슨 직업의 구분이 필요한가? 오히려 남들이 쉽게 하지 않으려는 어렵고 빛이 안 나는 희생적 일을 하면 그 빛이 더 비칠 것 아닌가? 도리어 그런 일을 찾아서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생을 보냈지 않는가?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짓일 뿐이다.

범사에 주께 하듯 하라.

주부 신자에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거의가 아직 모르겠다거나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구역장이나 찬양대원이 소명이라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직분을 맡았다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다는 축에 들 텐데도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야 한다는 소명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주부 신자라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다. 반면에 구역장이나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일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성도끼리 교제 격려 고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말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부 측면임에도 틀림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은 짐짓 외면한 셈이다. 또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서도 현저히 부족하다. 그 일들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에 속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위명업이다.

바뀌 말해 주부, 엄마, 아내, 며느리 등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내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부 일은 복음과는 아무 연관도 없으며 매일 되풀이되는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 씨잘 데 없는 허드레 일이라 치부한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다. 또 그 안에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풍요하고도 아름답게 들어 있다.

먼저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서로 주께 하듯이 사랑해보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모습으로 말이다. 각자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해준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가 확충되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에 온전히 충성하며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반 부부도 할 수 있다. 신자 부부의 사랑이 일반 부부의 그것과 다른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결정은 주님과 성경 진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또 서로가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근거와 힘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다. 물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도 부부가 개별적으로 혹은 합심해서 주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와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의견이 아무리 옳아보여도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격려로만 자녀를 대한다. 마찬가지로 그들 부자관계를 아름답고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둘 사이에 흐르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다. 자녀는 주님께 대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는 주님이 그 제자를 대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식사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식의 종교적 외양적 경건의 모습을 갖추라는 뜻이 아니다. 문맥 안에서의 뜻은 신자는 복음의 진리로 자유해졌기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더라도, 연약한 자가 혹여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종교적 형식으로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와 경계를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라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최우선적 절대적 기준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높임은 다른 어떤 경로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높여지길 원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기도했지 않는가?(요 17:1)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를, 나아가 불신자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워 하신다.

신자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신자가 받은 소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이 선한 행실로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직접 명하지 않았는가? 또 그러기 위해선 어떤 핍박도 감내하여서 사망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 사랑을 받는 이웃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신자도 다시 살리사 이웃과 함께 당신 앞에 세우게 하시도록 말이다.(고후 4:12-14)

일반 은총도 너무나 중요하다.

주부, 아내,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실현하는 평생 직업이라고 확신하는 자라면, 흔히 이해하듯이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설거지, 방 청소, 빨래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할 것이다. 신자니까 더 선해야 하고 어떤 일에도 짜증내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나 책임과는 별개다.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식구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가족끼리 즐겁게 먹으면 화목해지고, 무엇보다 그런 맛있고 아름다운 식탁교제 가운데 각 자가 주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성숙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얼마든지 사경회, 기도모임, 부흥회,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다.

물론 주부도 연약한 인간이다. 피곤하고 짜증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소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주부가 자신의 평생 직업이라고 자부하는 자는 더 이상 허드레 일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가 풍만함을 확신하고 찾고 누리게 된다.

식탁기도 가정예배 등 종교적 외양을 갖추려고 별반 노력하지 않는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소명이 확실하고 그 소명을 실현시킬 통로인 직업도 확정되어서 그 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신자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독교적 냄새가 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꼭 전도, 기도, 말씀, 예배, 찬양 등이 주가 되거나 곁들여져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라는 종교와 일차 연관되지 않는 일들은 단지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치운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심지어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는 꿈도 꾸지 않는다.

아니다. 하나님은 신자는 끝까지 따로 구별하여 사랑하지만(특별은총), 불신자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며 사랑하신다.(일반은총) 말하자면 직장에서도 꼭 신우회나 기도모임을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소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해는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중요치 않거나 해선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일은 회사의

실제적 업무다. 실력 있게, 정직하게, 책임감을 갖고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물론 부패나 부정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반(反) 하나님적인 일은 과감히 거부하면서 말이다.

나아가 신자가 전도,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신자가 대행하는 것이다. 신자 의학자라면 암 퇴치 특효약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것을 소명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연구실에만 평생 박혀 있어도 정말로 모범이 되는 방식과 태도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실제적인 업적을 쌓으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평강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주위 불신자들로부터 과연 신자 의학자답다는 평판을 듣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조급증을 없애는 최고 비결

신자의 화목케 하는 직책이 바로 이것이다. 꼭 직접적인 전도만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방도가 아니다. 세속 직업이 전부인 불신자로 하여금 그와 전혀 다른 영적 차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선 세속 직업 안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 사는 것이다. 불신자로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 일반 은총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수은총만 소개해선 안 된다. 교리와 전도하는 종교적 모습만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똑 같이 형식과 계명에 묶이는 것 같아 오히려 예수 믿기를 꺼려한다. 일반은총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특수 은총으로 이끄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인 것이다.

예컨대 신자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간음과 낙태가 죄라는 성경 진리를 세상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또 영적 찔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동등하게 사랑으로

섬겨야만 한다. 그러나 동성애 부부가 고아를 입양해 키우는 선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 전에 신자 부부가 먼저 그래야 한다. 쉽게 말해 신자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도 불신자 부부들보다 더 선해 보여야만 신자들의 동성결혼 반대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체는 이것이다. 모든 신자는 소명을 받았다. 실현할 수단인 직업만 스스로 고르면 된다. 그리고 어떤 세속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신자가 전부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이끄신다. 당연히 조급증이 생길 수 없다. 평생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법이다. 부지런할 수는 있어도 말이다. 그저 분주하게 우왕좌왕 하는 법이 없다. 오직 한 길로만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조급증이 생기겠는가?

기도 말씀 자주 많이 본다고 꼭 주님과 교제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진짜로 하고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두지 않는다고 고백했지 않는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만 하나님이 같이 있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동행하기 위한 준비이자 훈련일 뿐이다.

직업은 스스로 무엇을 택해도 된다.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 인간이며, 그 안에 원죄의 본성이 생생히 남아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즐겁고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내 직업을 통해서 확충하는 일이 진짜로 신나고 즐거워야 한다. 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봐도 깨달을 수 있다.

이 직업의 일이 내 평생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또 그 일을 함에 나는 진짜 너무나 기쁘고 신나며(꼭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릴 것이라는 기대나 예상이 앞서는 것이 아님), 나아가 이 일을 하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기회 닿는 대로 직접 복음을 말로 증거 설명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일이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확히는 자기와 동행하는 주님이 그 일을 주관하게 된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시킨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급증을 없애는 최고 비결까지 터득한 셈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소명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받은 소명을 실현할 열성과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소명은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이며 그 실현 수단은 직업이다. 만약 그 소명의식은 철저한데 직업만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자기 좋아하는 직업으로 바꾸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주위에 미혹된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곳에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문사역자 같은 소명을 못 받아서가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싶은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연단과 시험과 유혹

한 간호사 초년병이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노련한 외과의사의 큰 수술을 도왔다. 수술이 끝날 때쯤에 그녀는 수술에 사용한 12 개의 솜뭉치 중에 11 개만 회수 되었고 나머지 한 개는 아직 환자의 몸속에 있다고 보고했다. 의사는 열두 개 다 꺼냈으니 이제 봉합하면 된다면서 바늘과 실을 집어 들었다. 간호사는 “절대 지금 꿰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끝까지 우기며 만류했다. 그러자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자기 발밑에서 솜뭉치 하나를 꺼내 보이며 “앞으로 내 수술에 전속으로 도와 달라. 같이 열심히 잘해 보자”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녀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하나를 몰래 숨겼던 것이다.

하나님도 신자에게 이런 방식의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다. 주의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바꾸려는 시험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인내하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아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게 하는 것은 연단(鍊鍛, Trial)이지 시험이 아니다.

예화에 나오는 시험은 문자 그대로 Test(試驗)이다. 의사는 간호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확인해보려고 문제 하나를 제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신자에게 정말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또 그 믿음을 실제로 삶에서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원한다. 따라서 신자로 어떤 특별한, 주로 급하고 힘든 경우에 맞닥뜨리게 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시험이다.

비유컨대 연단은 학생이 밖에 나가서 놀거나 빨리 자고 싶은 유혹(시험이 아님)을 이겨내고 밤늦게까지 학기 내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해당된다. 시험은 그 공부한 실력을 중간시험, 기말시험, 입학시험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성경에 좋은 예들이 있지 않는가?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는지 사단과 내기를 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더러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풀무 불에 던져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만들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지 두고 보았다. 그들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통과하기까지는 길고도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하루 아침에 믿음이 그토록 강해진 것은 아니다.

학생이 공부를 쉽 없이 해야 하듯이 신자가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도 평생을 두고 이를 과업이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과제가 학생에게 주어지듯이 연단도 신자의 신앙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무거워진다. 한마디로 연단은 신자가 지닌 당장의 믿음에 비해 버거운 부하(負荷)가 걸리는 고난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평생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성숙의 합격점에 완벽하게 다다를 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심 같이 신자도 온전하길 바라며 모든 신자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다. 또 신앙 성숙이 당신께서 보기에 어느 정도 성취된 단계마다 수시로 시험을 제시한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세속적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만드는 시험이다.

거기다 신자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문 앞에서 우는 사자 같이 항상 웅크리고 있다. 우는 사자라면 배고파 죽을 지경인지라 그 덮치는 힘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은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자기 품에 안기라고 온갖 교태를 뜬다. 이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 정확히 말해 유혹(誘惑-Temptation)이다. 결국 신자가 싸울 영적전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여 시험에는 합격해야 하고 유혹은 물리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세포적인 신앙

간혹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거나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자가 있다. 전도를 받을 때에 모든 수고와 짐을 덜어준다는 거짓 약속에 속았고 교회 출석 후에도 계속해서 기복주의적인 설교만 들어서 그렇다. 죄로 타락한 인간과 피조세계가 받아야만 하는 징벌인 고난이 신자라고 결코 비켜가지 않는다. 아니 살피본 대로 일생을 두고 연단을 통과해야 하며, 수시로 시험도 받아야 하며, 유혹은 단 한 시도 중단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신자의 일생은 세상 사람의 형편이나, 믿기 전의 자신과 비교해 오히려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신자의 경우 연단, 시험, 유혹을 믿음으로 구분 대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믿음 자체가 없으니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신자와 다르지만 성공은 자기 공로로, 실패는 남과 세상 탓으로 돌려 버리면 그만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이 셋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연단은 누구나 겪는 힘든 세상사요, 시험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력을 자랑할 기회요, 유혹은 즐겁게 사는데 필수적인 오락일 뿐이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으니 그분이 그들 믿음을 성숙시키거나 시험해볼 근거라곤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 또한 가만 놔두어도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기에 따로 유혹하고 꾀방할 이유가 없다.

신자는 다르다. 이 셋을 잘 분별하여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 불신자는 고난이 닥치면 그저 힘들어서 속히 탈출할 궁리만 한다. 신자마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 외에 영적으로 자란 것이 없다. 또 작은 환난을 이겨내었기에 다음의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배짱이 늘어난 것뿐일 수 있다.

환난 중에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어야 정말로 믿음이 자란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이다. 연단의 도착지가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환난이 닥치면 어서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면 기도자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인식은 커녕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다는 소망마저 없는 셈이지 않는가?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해지기만 한다. 자연히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허락했는지 그분의 뜻은 알려하지 않고 빨리 구해달라는 투정만 부리게 된다.

연단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현재 겪는 고난을 연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혹은 한 번이라도 그분의 뜻을 물을 것이다. 그 대신 순전히 환난이라고만 간주하면 시급한 탈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연단을 겉모습만으로 환난이라고 여기는 이유 또한 너무나 간단하다. 신앙을 갖는 일차 목적이 자신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범사를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아닌지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겨서 육신적 정신적으로 아무 불편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반대가 되면 무조건 징계다. 신앙이 너무나 단세포적이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면 단번에 울음을 그치고 주지 않으면 마냥 우는 꼴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다. 믿음을 소지하여서 자라게 하는 주체는 분명 신자이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에 혼자 힘만으로는 온전히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신자가 만나는 사람, 사건, 환경 모두가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연단이다.

따라서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 굳센 의지력으로 인내하고 어서 빨리 환난을 끝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연단을 통과하는 필요조건일 뿐이.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충분조건은 따로 있다.

바꿔 말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아진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며 믿음이 자란 한 증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신자라면 자연히 뜨겁게 기도하게 된다. 심지어 불신자도 천지신명에게 그럴 수 있다. 믿음이 자랐다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반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비유컨대 의사가 대학을 갓 졸업한 간호사더러 자꾸 아주 어려운 수술에 참여하라고 명하는 것은 연단이다. 그런데 너무 정밀하고 어려운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수술인지라 “왜 나 같은 경험도 없는 자더러 이 고생을 시키지?”라고 의심과 불평을 잔뜩 품고 어서 빨리 수술아 끝나라고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인의 실력이 자랄 길은 도무지 없다. 다음에 또 그런 수술에 불려도 온갖 핑계 대면서 빠지려고만 할 것이다. 그 유명한 의사와 개인적 교제를 나눌 기회도 점점 없어질 것이다.

반면에 간호사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 같은 신참을 이렇게 큰 수술에 참여시켜 주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큰 영광이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에서 열까지 놓치지 않고 배워야지.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수술이라도 불려만 주면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당연히 수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정밀한 수술이라도 피곤한 줄 모를 것이며 실력은 일취월장할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범하는 신앙상의 가장 큰 오류는 종교적 행태를 취하기만 하면 바른 신앙인 줄 착각하는 것이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면 신앙이 자란 표시거나, 신앙이 자란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세상 출세만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철야와 금식을 겸해도, 또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료를 찾으려는 비교 종교학적 연구라면 오히려 불신앙이지 않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신앙을 갖는 목적이 자기 평안에만 둔다면 환난을, 그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임에도, 어서 빨리 끝내달라는 기도 밖에 할 줄 모른다.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빨리 받아내면 믿음이 좋고 신령한 신자로 대우 받는다.

처음 믿은 신자는 주로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그 응답도 비교적 잘 된다. 하나님으로선 당신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부터 신자에게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 말고 기도부터 시키려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서도 기도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면, 다른 말로 어서 빨리 환난을 끝내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는가? 제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부터 심어달라는 꼴이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신자 스스로 이미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신자가 자신의 계획을 멋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그 일을 수행하는 종처럼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식이 되었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없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만으로 기도해선 안 된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보다 분명 더 좋은 때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당신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신자더러 그 자라난 믿음으로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 된다. 신자 독단으로 온갖 현실적 방안을 다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 말이다.

인간 만사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섭리 주관 통치하신다. 그러나 신자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은 신자와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신자의 믿음도 같이 자라게 한다. 신자더러 기도하도록 하고 또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신자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과 전혀 상충하지 않게끔 인도하신다. 신자에게 연단을 주신 당신의 목적은 신자가 바르게만 반응하면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신자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기도 중에 문제 해결의 지혜를 심어주신다. 아무리 환난이 중(重)해도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심령에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 나아가 당신만의 신령한 방안을 동원해서 단번에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함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는 기도응답방안이 당신의 크기만큼 질적 양적으로 무한대로 예비 되어 있다.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 가장 먼저 세상의 어떤 풍파가 닥쳐도 요동치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여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가치를 이 땅에 실현케 됨으로써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현실적 형편이 부요하든 궁핍하든 그리스도를 위하고 증거하는 소명에 붙들린 일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럼 환난의 모습을 띤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인내력을 키워야 하는가?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히 불경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연단의 목적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기에 그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여서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앞에서 비유한 간호사처럼 정말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본문이 말하는 바도 무엇인가? 인내만 온전히 이루면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따지면 Test 가 아닌 Trial(연단)이다. 여러 가지 시험(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그 안에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말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싶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환난 중의 신자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싶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진짜로 있다면 어떤 연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라게 해주시겠다는데 신자가 괴로워할 이유라곤 없어야,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초년병 간호사가 어려운 수술에 불려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듯이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 모세, 사무엘, 바울, 같은 인물로 바꿔주신다고 가정해 보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기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고난이 너무 중해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과 그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신의 안락만 추구하기에 고통이 따른다면 자신이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아내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궁핍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진정으로 원하는지부터 먼저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다. 문제는 신자가 가진 근본 태도다.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길 소원하면, 믿음의 내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자라게 된다. 또 정말로 소원하는 일이라면 그 이루는 방법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을 것 아닌가?

결국 조급증이 문제다.

작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평생토록 하는 일이라고는 환난을 없애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어서 그러라고 독촉하는 것뿐인 것 같다. 그분은 환난을 없앨 뿐 아니라, 환난도 주실 수 있고 사실상 그 환난을 주셨던 분인데도 그 사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아니면 그런 진리를 알아도 항상 잊고 있거나 짐짓 잊으려든다. 영적 전투의 첫걸음은 신자에게 환난이, 정확히는 연단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흔히 믿음으로 환난을 한 번이라도 잘 이겨내면 다음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것 같이 여긴다. 아니다. 불안하기는 여전하다. 그동안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줄 때까지 인내한 것뿐인데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다음의 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저 힘들게 인내만 했던 이전의 과정을 이번에도 겪어야 하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금껏 환난 중에 기뻐해 본 경험이 전혀 없기에 다음 환난에 기뻐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어떤 중한 환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관건은 따로 있다.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기에 가슴 설레게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연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환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자더러 현실적 형편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부터 소원하게 되는 그 때까지 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신자에게 닥치는 또 다른 영적도전인 시험(test)과 유혹(temptation)을 이겨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말은 또 많은 신자가 이 둘에 대한 영적 반응에서 범하는 실수 또한 연단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이미 바뀐 근본 신앙 자세로, 방법이나 비결이 아닌, 대처하여 스스로 이겨내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보면 자연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여긴다. 쉽게 말해 신자의 눈앞에 닥친 시험과 유혹 그 자체를 하나님이 몽땅 없애주길 바란다. 또는 자신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약했지만 기도로 아주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단은 장기간에 걸친 훈련이다. 시험과 유혹은 이미 눈앞에 닥쳐있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시험은 하나님께로, 유혹은 사단에게 온 것만 다르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연단이며, 같고 닮은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시험과 유혹이다. 시험과 유혹 그 자체로는 평소 실력이 확실히 다져지기는 해도 없었던 실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시험 점수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는가? 나쁠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하여 다음에 잘 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대학 혹은 취직 시험에서 결정된다. 벼락치기 공부로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매번 그럴 수 없다. 많은 신자들이 시험과 유혹도 벼락치기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려드니 한두 번은 성공해도 패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연히 자꾸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혹은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등의 의심과 불만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

학생이 장기적으로 성실히 공부하여 한 계단씩 실력을 쌓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시험만 끝내고 보려니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 신자도 같은 의도로 위급할 때만 기도하고 말씀 본다. 모든 영적 실패의 주범도 결국 조급증이라는 것이다. 연단(고난)은 물론 시험과 유혹도 어서 빨리 벗어나고픈 열망 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몽땅 빨리 없애준다는 맹신(?)에 빠져 있고, 또 얼마나 뜨겁게 오래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영적전투를 승리하는 비결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정작 따로 있다. 강한 믿음보다 정확한 분별력이다. 그 분별력 또한 평소 실력이자 벼락치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 유혹은 사단에게서 온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반대다. 하나님께로 오면 당연히 풍요하고 좋을 것이며 사단의 경우는 반대라고 여기는 그 기대 말이다.

유혹은 거의 매번 달콤하고 화려하고 풍성하다. 그러니 유혹은 유혹이라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시험은 거의 매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포기해야 하는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려면 주로 좋아 보이는 쪽을 포기해야 하므로 희생과 수고가 따르며 힘들고 아프다. 유혹과 시험의 이런 특성상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시험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둘 다 실패가 잦게 된다.

어떤 측면에선 하나님이 참 짓궂지 않는가? 우리 죄의 본성이 생생하게 남아 있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너무 어려운 숙제를 매번 던져주지 않는가? 조금 더 쉽게 금방 답을 알 수 있고 또 고통도 따르지 않는 시험을 주고, 유혹도 악한 냄새가 진동하도록 나타나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는가?

그러나 그러면 시험도 유혹도 아니다. 믿음도 전혀 자라지 않는다. 대학생이 되도록 덧셈 뺄셈만 하게 하면 오히려 학생이 더 신경질 낼 것 아닌가? 그런데도 신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꼴이다. 공부해서 실력을 늘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초등학교 과정과는 천양지차가 나야 한다. 시험과 유혹도 갈수록 더 어려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신자를 기분 내키는 대로 갖고 놀거나, 갈수록 고통을 주며 즐기는 새디스트는 결코 아니니까 말이다.

시험과 유혹은 거의 동시에 유사한 모습으로 올 수 있으며, 때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건의 두 측면일 수 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며, 시험을 통과하면 유혹은 벌써 멀리 떨어져 나가 있다. 욕기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 내기를 걸듯이 한 사건 안에서 시험과 유혹이 공존하는 법이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시험과 유혹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 각각의 경우를 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數)를 대입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듯이 현실적인 결말을 예측 계산해보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영적 전투를 살피고 있지 세상 출세를 믿음으로 쟁취하는 방법을 알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사탄은 신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의 허락 하에 신자에게 보장해준다. 그러나 필연적이고도 분명한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점차 그 삶과 인생에서 퇴색되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험의 결과는 그 정반대이다. 비록 고통스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운 생명력으로 활기차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 사랑, 감사, 찬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진지하며 충만하게 된다.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이 삶의 최고 기쁨이요 인생의 첫째,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유혹과 시험을 만나면 자기가 선택한 어떤 대처방안이든 그 결말이 하나님과 자신이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뜻이 실현될지 여부로 세심히 따져본 후에 실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단, 시험, 유혹, 어느 것이 되었던 영적 전투를 신자가 잘 치러낼 수 있는 관건은 하나뿐이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있기에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지 여부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아니 그런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가 따르지 않는다. 기도와 말씀도 아무리 신령하고 경건해도 일회성 종교행사로 그치게 된다.

신자란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직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당연히 세상의 어떤 환난도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충분히 감내하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영적 전투에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도 기도나 말씀에 등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전혀 높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자신이야 어떻게 되던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가 실족하는 일에 염려가 가장 앞서지 않는다면 영적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영적 분별력의 본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됄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强請)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5-13)

믿음과 행동이 다른 신자

오래 전에 나온 짐 케리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 Mighty 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신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케리는 매일 컴퓨터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준다. 그런데 복권 1 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자주 많이 올라왔다. 일일이 상대하기 귀찮아서 전부를 한 번에 클릭해 "yes"라고 답했다. 그 결과 일등이 수십만 명이 나왔고 상금도 일인당 겨우 몇 불밖에 배당되지 않아 사람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가상적 코미디이긴 해도 암시하는 바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신자가 되어서도 현실적인 대박 행운을 바라며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들 전부가 엄격한 의미의 신자는 아니라 해도 신을 믿고 신께 기도한다는 면에서 완전 불신자 또한 분명 아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원하는 무엇이든 신의 능력을 동원해 이뤄내는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과연 크리스천들은 그 영화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아니 아예 영화처럼 믿고 행하는 자가 꽤 되는 것은 아닐까? 거기다 성경적으로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신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는 사실을 짐짓 부인하거나 잠시 잊고서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에 드러내는 일에 인간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반대편으로만 향하는지 모른다. 엄연히 성경적 진리임을 잘 알고 믿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 그에 반하면 주저 없이 눈가리개를 차버린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잘못인줄 알면서도 어떡하든 그에 적절한 핑계를 마련한다.

지금 단순히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기도할 때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다.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영적인 일마저 자기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죄의 출발이 된 자기중심적 본성이 영적인 일에도 작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행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 처형의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혼신을 다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순종하겠다고 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모르는 신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자기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 꼭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한다. 거기다 어떤 이들은 그런 고집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부추긴다.

강청하면 다 응답되는가?

기도의 핵심 원리마저 오해 내지 오용(誤用)하는 이런 부조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리는 없다.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순이 생기는 까닭은 우선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신자들로서는 두 가르침 다 맞지만 이왕이면 자기들 편의에 맞고 마음에 드는 가르침 즉,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쪽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비교적 양심적인(?) 신자들은 무엇이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쪽을 믿자니 아무래도 조금 찝찝하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못내 걸리는 것이다. 바로 그 때에 궁지에 빠진 신자를 건져주는 구원투수처럼 본문이 등장한다.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응답 받으려니 뒤통수가 조금 땡겼었기에,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식으로 기도에 대한 인식과 적용을 조금 고급스럽게(?) 수정하는 것이다.

그 속내는 실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정성과 열심을 하나님도 잘 봐주시겠지 기대하는 것뿐이다. 정성과 열심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은 이방신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으신 의미가 인간들의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당신께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알려준 것이지 않는가? 단지 끈질기게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된다면 믿음과 기도는 인내력 내지 의지력 싸움 밖에 되지 않는다. 천성적 기질이 의지가 강한 자만 복을 받는 것이며, 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부터 그런 자들만 편애한 셈이 된다.

신자들이 흔히 갖는 또 다른 오해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방식 자체를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 심지어 그분의 뜻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기도했으니 남은 것은 응답받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다. 기도하는 방식 자체가 그 나라와 의가 아니다. 기도에서 내용이 먼저이지 방식은 이차적 문제일 뿐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순전히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 적용하는 너무나 머리 좋은(?) 신자들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들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쳤다. 그 비유 내용이 밤중에 무턱대고 친구를 찾아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인데다 주님이 벗 뒀을 인하여는 거절해도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해석까지 곁들였다.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준다고 오해할 만하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접하는 물건이나 일들로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의 청중으로선 자주 겪는 사안으로 아주 익숙한지라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먼저 당시 서민의 가옥은 방이 여럿 있지 않고 One-room 스타일로 아이들과 함께 기거했다. 밤중에 문을 자꾸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친구가 구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친구가 밤 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이웃의 친구를 찾아간 것이다. 당시는 여행객을 대접하고 재우는 것은 기본적 예의였다. 밤중에 먹을 것을 찾을 정도면 그 여행객이 끼니를 굶어 아주 시장했었는데 마침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음을 뜻한다.

거기다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세 덩이만 꾸어달라고 했다. 친구 사이에 딱 세 덩이가 남아있다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어서 빨리 주어서 보내야 할 것이다. 구태여 강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벗됨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들어준다.”는 일차적 의미는 “구태여 친구가 아니라도 모든 상황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자. 무엇보다 강청하는 내용이 다른 이를 위한 선한 일이었다. 또 밤중이라도 구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평소에 먹을 것을 서로 꾸어주고 받을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친구는 꼭 필요한 세 덩이만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소용대로” 주신다고 했다. 비유가 함의하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신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옳을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자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지는 않는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평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가 당신이 보시기에 선하거나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응답하신다. 또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응답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강청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기도하는 자의 열성이나 정성보다는 끝까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는 건방짐과 끈질김의 두 가지 뜻이 있다. 밤중에 친구를 찾아갈 만큼 뻔뻔스럽고도 염치없음을 말한다. 또 떡을 얻을 때까지 문들 두드리는 끈질김이다. 언뜻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자의 기도 제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부끄럼이나 가책 없이 당당하게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자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2-4 절은 주기도문으로서(마태의 기록에 비해 조금 생략되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의 모범 즉, 신자의 기도예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기도하는 순서를 가르쳤다. 둘째 5-8 절은 살피본 대로 비유를 통해 기도할 내용과 태도에 관해 말씀하셨다. 마지막 9-13 절은 일련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격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이다.

먼저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응답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기도하는 내용과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쉽게 말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강조하셨듯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가 신자의 호흡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앞선 비유의 해석이다.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해석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을, 알을 달라하면 알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았다.

나쁜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인이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 당연히 천부께선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구하는 아들 즉, 신자의 판단력보다 아버지 즉, 하나님의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다는 것이다. 신자가 잘못 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은 주시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다. 신자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기도한 대로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세 가르침의 최종 결론인 13 절 후반부를 주목해야 한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라고 여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마태는 동일한 기록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한다. 기도하는 이마다 각기 그 제목이 다 다를 것인데도 응답은 한 가지 성령이다. 모든 기도자에게 성령을 다 주신다는 뜻이다.

그럼 신자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할,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바로 성령이 된다.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성령 받는 것이다. 문제는 신자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도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다. 비유에서 살펴본 대로 아들이 잘못 구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주신다는 것이다. 또 그 응답도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내주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신자가 강청함의 기도로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라고 말하는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신자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끈질기고도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강청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인식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

서두에서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기에 언뜻 상충되는 가르침 같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모순될 리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가? 둘 다 맞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가? 말하자면 종교적 도덕적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현실적 일은 무엇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 일단 종교적인 측면을, 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일들이겠지만, 먼저 기도한 후에 자기 소원을 전부 아뢰면 되는가?

성경에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해준다는 말씀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붙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榮光)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이 말씀의 바로 앞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타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12 절)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15 절)고 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 하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구하고 또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하고, 무엇이든 구하라는 말씀을 별개의 독립된 구절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진술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무엇이든 구하라”가 바른 해석이자 적용이다.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무엇이든 강청하는 기도를 하여서 응답 받으면 된다고 여겨도 안 된다. 오해는 말아야 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자신의 삶과 인생에 나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구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다.

본문의 비유에서 강청함의 기도에 성령의 열매로 응답한다고 해서 현실 문제를 기도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짐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또한 신자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당신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문둥병자들을 고쳐준 후에도 반드시 제사상에게 가서 결례를 하라고 명하신 까닭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실은 그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해도 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므로” 채워주신다고만 했다. 한마디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즉,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이 말씀의 문맥상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결론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34 절)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도보다 염려하지 말라는 데에 초점이 모인다. 처음 시작하는 말씀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31 절) 그 모두를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같은 현실적 필요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신에게 간구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들이 항상 열망하며 추구하는(seek after) 대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다. 신자들은 그 반대로 인생의 목적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오직 현실의 안락과 형통만 목표로 살기에 그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필연적으로 염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신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부족한 것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실적 필요에 관해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할 수는 있으되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서 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삶과 모든 환경에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의다. 따라서 신자의 인생은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만약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과 주위에 실현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흔히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미 말한 대로 종교적 행사나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위해 먼저 아주 간단히, 어쩌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기도한다. 그런 요식절차를 마친 후에도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꼭 필요한(need)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맘껏 하고 싶고 갖고 싶은(desire) 것들을 기록한 기다란 리스트를 열심히 낭독한다.

심지어 비전이라는 거창하고 고상한 용어로 포장만 했다 뿐이지 그 욕심의 크기가 클수록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한다. 욕망이 크니까 자연히 강청하는 기도는 더더욱 강조된다. 기도에서 강청함은 신자의 끈질김의 강도나 열성이 아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불드는 온전하고도 순전한 인내다.

비록 그 순수성이 의심되더라도 종교적, 도덕적인 일을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예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대체 방안 중에 어떤 것이 좋을 지 묻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양 착각한다. 어느 쪽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지 잘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더러 판단해

주고, 이왕이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선택된 일을 이뤄달라는 것이다. 기도라는 형식만 종교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마침 말만 기독교적이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전무하다.

그분의 신자에 대한 뜻은 오직 하나다. 당신의 나라와 의가 신자의 존재와 삶과 인생에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분의 신자가 이해하는 그분의 뜻은 자기가 제시한 여러 옵션 중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의 형통과 안일을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말한다. 또 그것이 그분의 나라와 의라고까지 착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신자가 구하는 것도 당연히 자기 존재와 삶과 인생에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충만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자신이 그런 통치를 통해 누리는 은혜와 권능을 주변 사람들이 생생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후 5:17)는 뜻이 무엇인가? 그 앞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5) 자신의 안위와 형통만 목표로 살았던 불신자 시절(이방인)과는 정반대로 살라는 뜻이지 않는가?

온전한 기도를 못하는 까닭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과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데 필요 혹은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에서 강청함이란 그분의 나라와 의가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기에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보고야마는 것이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뻔뻔함과 끈질김은 자연히 수반된다.

만약 자기만을 위하는 정욕과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딘지 모르게 기도해 힘이 빠지고 당당해지지 않는다. 또 신자 스스로 잘못된 기도임을 알아채기 이전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를 알고 탄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해도 아무런 확신과 평강이 생기지 않고 괜스레 놀리기만 한다.

강청함이 끈질김이라면 역으로 따져 조급해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거역이자 불순종이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다. 조급증이 큰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신자 간에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도자에 대한 1)계획과 그 계획을 실현하려는 그분의 2)시기와 3)방식이 그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 과정은 너무나 오묘하다. 하나님만의 크고도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고도 신비하게 작동하기에 인간 이성으로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끈질기지 못한 기도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병인데도 많은 신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알기 쉽게 따져보려는 뜻이다.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분의 뜻과 시기와 방식 셋 모두와 일치한다면 기도한 대로 순전히 응답된다. 성경에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 대표적 예다.(창 24 장) 그러나 평생에 몇 번 없을 정도로 아주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어떤 요소에서든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응답이 안 된다. 무엇이든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다.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응답이 실상은 응답인 셈이다. 당연히

강청함도 결코 통할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신자로 기도 중에 혹은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깨닫게 해주시기에 신자는 영적으로 항상 예민해져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신자가 바라는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다른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신자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원하는 대로 도달할지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인데도 신자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응답해주지 않는지 불만, 원망, 불신만 키우고 있다.

흔히들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마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도록 뜨겁게 강청하라고 한다. 이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연약한 형편에 있는 신자의 기도라도, 또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천국보좌는 물론 천하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역사가 정말로 일어난다. 요체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그분의 뜻이지 신자가 기도하는 열성과 정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예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그 범위는 절대로 그분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당신 한 분뿐이다. 당신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뜻이 아니고는 당신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기도 응답 여부도 오직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달렸다.

만약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거나, 궁극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속한 것이라면, 남은 것은 응답 시기와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응답되는 방식은 신자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만 그 시기가 다르다면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만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시기는 일치하는데 응답하는 방식이 신자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시기와 방식이 둘 다 다르다면 인내력과 분별력 둘 다 필요하다.

물론 기도하는 전후 혹은 도중에 하나님이 뜻, 시기, 방식을 신자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져 본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 기도에 이 셋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쩌면 그 중 하나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조차 거의 없다. 그런데도 왜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정확히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기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것은 자기 소원을 기도라는 경건하도고 정중한 형식에 담았다는 것뿐이지, 사실인즉 하나님더러 이런 저런 일을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대로 해내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또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불평, 불신하는 것도 조금 겸손한 표현일 뿐 내용인즉 하나님을 게으르다고 야단치는 것이다.

기도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 먹는 일이 아니다.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춰 나가는 정말로 힘들고도 내키지 않는 작업이다. 예수님조차 겔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지 않는가? 그것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될 정도로 말이다.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같이 내 뜻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의 실체

물론 신자의 모든 기도는 강청함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에 가장 요구되는 것도 열성과 정성이 아니라 인내력과 분별력이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자질이 아니다. 인내를 잘 하려면 뭔가 확실한 결과를 사전에 붙들거나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흔히들 무엇이든 응답된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실은 그 기도의 목표가 응답 자체이므로 오히려 온전한 인내로 이끌지 못한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응답은커녕 아무 징조조차 보이지 않으니 도리어 의심, 불평, 불신의 싹만 트게 된다.

그것은 무응답이라는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도 자기 기도한대로만 고집하는 너무나 큰 어리석음일 뿐이다. 이런 분별력이 없기에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 단지 힘든 일을 기도하여 어찌다가 해결 받는 일만이 신앙의 전부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주고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란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시기와 방식을 잘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영적 분별력을 신령한 초자연적 은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깨닫거나 구체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이는 단언컨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에서, 당신의 특별한 뜻에 따라,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명료한 계시를 줄 수 있음마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하는 것이기에 그런 능력을 지닌 자는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조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셨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시기와 방식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 기도와 일치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 간단하다. 자기가 기도하는 뜻과 시기와 방식을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해는 말아야 한다. 어차피 그 셋이 일치하지 않으니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은 아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뜻을 모르니 자기 소원대로 간절히 해야 한다. 그러나 꼭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고집만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에서 정작 필요한 믿음은 응답이 꼭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란 특정한 은사도 아니며, 음식과 함께 신령하게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심히 관찰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 관찰한 결과를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분석 판단해야 한다. 평소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분별은 쉽다. 다른 말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모든 되어져 가는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연결해서 잘 따져봐야 한다. 또 그러한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다.

영적 분별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다. 성급해지면 만사를 그르친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시기대로 분명히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분명하게 연관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 풍성하게 실현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실체라는 것이다. 미리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신령함이란 오히려 기도를 해나가면서 혹은 기도한 후에 모든 결과를 그분의 뜻에 맞게 이해, 적용,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범사가 신자의 기회

서두에 하나님에 관한 미국 코미디 영화를 예로 들었는데, 마지막에도 비슷한 영화 Evan Almighty 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스티브 카렐이 주연하고 신의 단골역인 모간 프리드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나온다. 어느 날 양심적이고 때가 묻지 않은 하원의원 이반에게 신이 나타나 21 세기의 미국 수도 워싱턴에 큰 홍수가 닥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이반은 처음에는 신께 거역해보지만 여러 표적을 보고 차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 당연히 성경의 노아처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특pecially 그의 아내는 자꾸만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남편이 정신이상에 걸린 것으로 여기고
가출해버린다. 남편과 아들들 걱정하며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웨이터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
이야기를 걸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겠는지 물었다. 신은 흔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믿지만 틀린 생각이라고 말한다.
대신에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깨우쳐주었다.

환난을 잘 이겨내려면 환난 중에 있어야 한다. 환난이 없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무조건적인 긍휼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신자들은 전혀 엉뚱하게 생각한다. 기도만
하면 환난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예수님 같은 성자 내지 능력자로 바뀌는 줄 착각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라고 가르쳤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것도 사실은 신자의 책임이다. 현실적 환난을 이겨내고, 잘못된 자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 모두는 신자가 감당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뜨겁게 기도했다고 인내력과 긍휼심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자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 그분이 자기 앞에 마련해 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신자의 인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저런 환난을 허락하고 또 이웃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 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신자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식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신자를 무사하고 안일하게만 이끄신다면 자식에게 사탕만 주는 부모처럼
오히려 신자를 망치는 지름길일 뿐이다. 우리는 그래도 좋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럼 영적 분별력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환난이 단순히 극복해낼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능력이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자가 달성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자라나갈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이다. 말하자면 자기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끔 하나님 그분이 마련해주신 둘도 없는 기회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신자가 겪는 범사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권능이 신비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 그런데도 그 실상을 발견해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믿음이 약한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 신령하지 않기 때문인가? 기도와 말씀에 등한해서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서인가? 재물과 권세와 명예만 먼저 추구해서인가?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물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껏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조급증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것이다. 소리 높여 중언부언으로 오래 동안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불만과 불신이 생겨도 당연하게 여긴다. 오히려 하나님 쪽 잘못으로 간주한다. 진정한 강령함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는 전혀 찾아보려 시도하지 않는 조급증이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기회는 차버리고 대신에 자기가 정한 기회에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동참시키려고 믿음을 잘못 적용한다. 열성적이고도 진지한 종교 의식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도리어 항상 거부되고 자신만 살아남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못해 비참해져 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세상 앞에 자기가 비참해졌기에 빨리 고상하게 바꾸라고 그분을 다텔한다. 사람에게 당하는 창피를 어서 빨리 지우고 싶은 일념뿐이기 때문이다.

조급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내력을 키우라고, 다른 말로 조급증을 없애라고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주시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정작 끈질긴 기도가 더 필요한 때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히 12:3)하면서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낙심치 않기 위해서 강청함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 자기 소원만
실행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어질 수 없는 사랑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고 찰튼 헤스톤이 주연한 걸작 영화 벤허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벤허가 자기 집을 들락거리면서 항상 대문 오른쪽 기둥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어떤 면에선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쉘마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을 적어서 문설주 상단에 넣어 놓은 곳을 만진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 6:6-9)

쉘마를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는 본문에 이어진 계명대로 따랐던 것이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암송했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민족은 없었다. 아니 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일한 민족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에 실패했다.

사랑이란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당연히 상대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만의 짝사랑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신실하고도 무한하신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각기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른, 사랑을 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없었음은 필연적 결과였다.

벤허 영화에서 보듯 유대인들은 성실하게 본문을 문자적으로도 엄격히 준행했다. 말하자면 사랑의 행동에는 성공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에 실패한 것인가? 본문대로 하자면 쉘마를 자기들 마음

판에 새기는 데에 실패했는가? 만약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은 이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새겼어야 하는데, 그분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최선, 최고의 사랑 행위를 하려고만 노력한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들 열심과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려 한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

오늘날의 신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 또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방안을 동원한다. 혹시 그 방식에 자신의 정욕과 죄악이 스며들까봐 각별히 조심도 한다. 그런데도 막상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혹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리 자신이 없다. 아직 그분을 사랑하는데 모자람이 많다고 여긴다. 그럼 참 사랑이 아니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했다. 포로 귀환 후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했다.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쏟아 지켰다.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안들은 장로들이 토라에 비추어서 판단한 의미와 절차에 따랐다.

히브리 본문은 우리말 번역과 달리 “이스라엘” 대신 “들어라”가 먼저 나오는데, 그 히브리 단어가 쉘마라서 통칭 쉘마라고 부른다. 그 의미가 단순히 어떤 소리가 들리는(hear) 것이 아니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유치원선생이 아이들에게 “Listen! Be

Quiet!"이라고 말할 때에, 듣는다(listen)는 단어의 뜻은 실제로 장난을 그만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벤허 영화처럼 문설주에 웨마를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만졌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했다. 회심하기 전의 바울의 모습이 그 증거다. 그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으로써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부했다. 철저히 계명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다. 또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엄격한 계명 준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소한 문자적 불이행도 허용될 수 없었다. 차츰 초기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계명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기보다는 계명을 실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결국은 형식적 종교로 변질되어버렸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율법을 순종하려 노력은 했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신자에겐 순종하려는 성의 아니 인식조차 없다. 대부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해줄 것이라는 타산적 사랑에 그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 내지 흥정일 뿐이다. 그런대로 믿음이 좋은(?) 일부 신자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열심만으로, 다른 말로 사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사랑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과 똑같이 메마르고 열매 없는 껍데기 종교생활로 흐를 뿐이다.

사랑의 본질

사랑이란 인위적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점령하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마냥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유가 붙으면 엄격히 따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기에 만약 그 이유가 되는 배경 혹은 근거가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냥하고 애교가 많아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는데 생활에 찌들려 상냥한 애교가 실종되면 사랑도 식어지지 않는가?

물론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에 비길 수는 없다. 그나마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에 가장 견줄 만할 것이다. 자녀는 혈연관계의 본성상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때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을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을 열심히 모색해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요컨대 사랑이란 사랑하는 방식에 따라 사랑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사랑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사람들로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구태여 사랑의 본질이나 특성을 따지지 않는다.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를 정말로 더 열심히 사랑하려는 마음뿐이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꾸 베풀기 원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누군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분명 진실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한결 같을지라도 명절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사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듯이 말이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문제는 사랑하려는 노력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 그것도 종교적 행위에 헌신적인 여부로 그 사랑을 가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 헌신한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이며 헌금이나 전도를 힘에 넘치도록 한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 헌신 봉사했는데 왜 어렵게 만드십니까?”라는 의심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는가? 그럼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성에 차지 않으면 간혹 싸울 수 있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선 자연스런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다 역으로 힘든 일을 겪지 않으려는 동기로 봉사와 헌신에 열심을 보였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선물 공세로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려 드는 것은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하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랑이지 않는가?

하나님을 오래 참아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앞선 글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한마디로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도 똑 같이 행하면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끝까지 그분을 참아줄 수 있다. 신자가 하나님께 참아준다는 것이 무례하고 어불성설 같은가? 아니다. 상기 구절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입해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에 대해 오래 참고, 그분께 항상 온유하며, 그분과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하여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분 앞에 나를 내세우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분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분께 성내지 아니하며, 그분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세상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에 대해서 참아준다는 표현이 조금 이해되는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목적도 결국에는 그분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역으로 따져 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지 않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과 원수 된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고, 흉악한 죄인에게조차 온유하며,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누구에게도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악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인간이 범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일방적 짝사랑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짝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었던 짝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련한 모습 그대로다. 인간끼리 서로의 잘못과 욕심으로 갈등하지 않기 위해 아무 상처도 생기지 않는다. 평생 가슴에 일방적으로 품고만 있으니 때가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짝사랑을 하시는데 우리 중에 그분의 짝사랑에 걸 맞는 사랑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성경적 정의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현재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행태와 비교해 보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이 쌓여도 그분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가? 아무 의심, 불평, 불신을

갖지 않고 말이다. 초기에 생기는 자연스런 부정적인 반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선 그분의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가? 등등

그분에 대해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천국에서 내려오는 따뜻함으로 자신의 가슴에 채울 수 있는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을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그분만 생각하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초조함이 사라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가? 등등

세상에서 출세한 자, 권력을 지닌 자, 재물이 많은 자에 대해 정말로 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형통을 안 주는지 하나님께 불평을 품지는 않는가? 나의 안전과 행복을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서 찾지는 않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 그분보다 다른 이의 현실적 형통에 질투가 생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나보다 현실적 형편은 훨씬 못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는 나보다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도를 부러워한 적이 있는가? 등등

혹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나와 자랑하지는 않는지? 헌금한 액수로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생색을 내지는 않는지? 대표기도를 은혜롭게 잘하고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전부 수료한 것이 어깨의 계급장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훈련과 헌신에서 남보다 앞서도 아무 표도 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진정과 겸손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행할 바는 다했다고 자부하고 이젠 하나님이 보상할 차례라고 믿고 그분께 자꾸만 더 요구하지는 않는지?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빛진 자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살고 있는지? 등등

자기 삶의 모든 활력과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움을 확신하는지? 혹시라도 자기 능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해내리라 자신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지성과 영성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범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자신을 과신하기에 기도하지 않고 처리하는 일은 없는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낮추고 비워서 그분께 내워드리지 않는 교만이 남아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와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무례히 행치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먹든 마시든 과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거나, 그들의 죄악에 부화뇌동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도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핍박과 멸시가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주위에 드러내고 있는가? 등등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은 어떻게 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지?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그분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성취하려 하는지? 그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원하는 것마다 떼쓰며 기도하지는 않는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목들이 과연 있는지? 비록 그분의 뜻을 몰라 무엇이든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는지? 최소한 그분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가장 나의 유익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는지? 등등

자신에게 어떤 위급한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성내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 분에 넘치도록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비례해서 축복을 받지 못해도 그럴 수 있는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욕과 같이 졸지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그분께 끝까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등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 있는가? 세상의 악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는가? 세속적 방식과 교묘히 타협하려 한 적은 없는가? 잠간 눈을 감으면 매사가 형통할 것 같아서 일부러 국외자인척 한 적은 없는가? 하얀 거짓말을 하여서 사태를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끌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거짓을 한 적은 없는가? 헌신하거나 바치기로 결단하고서 준행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등등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정말로 저주하며 싫어하는가?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를 터트리는가? 날로 완악하고 씩어져가는 이 땅을 보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두고 깊이 갈등해 본 적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살아 있음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해본 적은 있는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는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그분의 진리를 지키고 키우는 기쁨을 누리는가?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최소한 진리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아는지? 등등

사랑의 특성 별로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적어 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깊이 따져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껏 출석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각종 종교 활동에 열심인 정도로 그분을 힘껏 사랑했다고 여기는 우리 생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 수 있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행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그중 일부라도 성실히 행하면 아주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이다. 그리고 상기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남은 특성이라도 제대로 부응하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과 열매 맺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오래 참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기에, 최소한

그분의 인도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줄 확신하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에 대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바로 앞선 글대로 그분에게 강청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중매결혼과 연애결혼

중매결혼과 연애결혼 중에 어느 쪽이 이혼율이 높겠는가? 언뜻 중매결혼일 것 같지만 그 반대다. 그 이유는 결혼의 목적과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연애결혼은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다. 반면에 중매결혼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몇 번의 만남만 가지고 아직 사랑이 영글기 전이라도 가정을 갖고 싶어서 결혼한다.

결혼의 목적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것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이 다르다. 전자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지면 가정 자체도 문제 된다. 거기다 사랑의 절정에서 결혼했기에 오히려 줄어들 일만 남았다. 서로의 결점과 허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사랑도 식어진다. 후자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에 사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사랑과 그리 관계없이 결혼했기에 살을 맞대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정이 들고 사랑은 깊어진다. 예외적인 경우도 다수 있겠지만 일반적 원리로 봐서 그렇다.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유사하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뜨겁게 연애하듯이 사랑하려 한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연애결혼으로 간주한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사랑의 절정을 맛본다. 곧바로 하나님과 결혼은 했는데 상호 결점과 허물이 조금씩 드러나면 사랑도 그에 비례해 줄어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싶으면 의심, 불만, 불신이 싹트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다. 사랑하는 방식과 행동에 신앙의 초점을 모은 탓이다.

하나님과 중매하듯이 결혼해야 한다. 처음 그분을 만나 사랑의 절정을 맛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첫 만남 이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것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목표 또한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임을 즉, 나를 향한 사랑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기에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자연히 그분께 받는 은혜의 양과 질로서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이 두 결혼은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연애결혼은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중매결혼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방식에 관심을 쏟게 되기에 상대방에게 받는 사랑의 강도가 약해지면 내 쪽에서의 사랑도 식어진다. 후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러가면서 사랑이 자라간다.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한 그 사랑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랄 가능성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사랑하는 신앙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쉼마도 분명 그분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요, 근거요, 목표라고 말하지 않는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원리다.

그런데도 정작 신자들은 사랑하는 방법에 너무 열중하다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똑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주길 기대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방식만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방식에 의심과 불만이 생기면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 결혼식 주례사의 영원한 진리대로 그분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하는데도, 눈과 비가 조금만 뿌려도 그분의 사랑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마저 바꿔버리거나 취소해버린다.

다시 벤허 영화로 돌아가면 주인공 벤허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안일하게 생활할 때는 대문을 출입하며 쉼마를 만지는 모습이 형식적, 의무적, 습관적이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문자적으로 성실히 지키기는 하지만 진정한 경외나 감사가 묻어나오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종교적 일상사였을 뿐이다.

그러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의 사건으로 큰 불행을 맞게 된다. 여동생과 아내가 투옥되고 본인도 로마의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마음이 이전의 번성하던 때와 많이 달라졌다. 여러 환난을 겪는 중에는 쉼을 거의 주먹으로 치듯이 만진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잔뜩 묻어져 있었다. 내가 악행을 한 적도 없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여호와를 믿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느냐는 뜻이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불행은 막아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목표가 다른 신앙

신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 그분이면 그 신앙도 영원하고 절대적이고도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그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이 된다. 반면에 그분께 받는 사랑이 목표면 그 신앙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며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자체는 너무나 놀랍고도 엄청난 권세와 신비가 숨겨져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전에 요구할 때부터 일시적 현실적 사랑만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서도 영원토록 그 질과 양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야 참 사랑이다.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어리석은데다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만을 목표로 하는 신앙인이라도 환난이 닥치면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고 때로는 죄악과 정욕이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결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은 있다. 그분과의 관계만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방해 받지 않고 스스로도 온전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을 뜨겁게 유지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와 어떤 일이 있어도 드러내고야마는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끝까지 기다리며 그분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라. 그들의 신앙 여정은 조급증을 없애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으로 일관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조급증을 보였지만, 외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기다릴 줄 알게 되었지 않는가? 모세는 조급해서 애굽 관원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40 년의 인고의 훈련을 시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지 않는가? 가장 가까워야 할 장인과 아들들과의 갈등으로 평생을 참은 다윗과 종살이와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한 요셉은 틀림없이 강청함의 기도의 달인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비방과 멸시를 120 년간 참아낸 노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신약의 사도들은 어떠했는가? 인내의 기록이 없어 보이는가? 아니다. 예수님과 삼 년을 동고동락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금방이라도 로마를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스승은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비록 높은 자리 차지할 싸움을 했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핍박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다. 비참하게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은 참고 또 참았다. 고난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지가 신자의 오래 참음의 결정적 변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참아주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근거는 그 최종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표라는 것은 그분이 신자에게 마련해 놓은 궁극적 열매가 목표라는 말과 같다. 그 열매로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자는 지옥 같은 훈련을 감내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6-18) 바울은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니까 이 땅의 일시적 환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이 땅의 형통 즉, 하나님께 받는 일시적 현실의 축복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다. 오직 천국의 영광 즉, 하나님 당신이 목표였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참아낼 수 있었던 까닭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5,16) 모세 또한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자기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받았고 또 부활 생명으로 덧입혀질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고후 4:14)

그 모든 앎과 믿은 후에 그 앎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믿을 때에 자신에게 내주케 된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에 따른 것이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4-7)

일 세기 말에 로마황제송배에 반대하는 크리스천을 향한 박해가 본격화되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단계까지 되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한마디로 신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목표로 하게 살게 된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온갖 핍박과 고난은 필수적이다. 이 땅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인생이 신자다. 더럽고 추한 죄악과 싸우며 사단에 미혹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실현하고 맛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데에 신앙의 모든 초점이 모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의심, 불평, 불신이라고는 없었다. 그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다. 그 소망이 모든 삶의 능력이요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기쁨이었다.

지금은 일부 선교지를 빼고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과 핍박은 없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에서 형통과 안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조차 전혀

참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여긴다. 교회 활동에 아주 성실했고 새벽제단에 나와 뜨겁게 기도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심판을 주셔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분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참으신다. 우리는 그분을 하루도 참아주지 못해 새벽마다 생떼를 쓰는데도 말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짝사랑이다. 우리도 짝사랑을 하긴 한다. 세상을 향해서만 그렇다. 그런 후에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며 떼쓰기에 적당할 정도의 생색만 낸다. 조금 나은 편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짝사랑한다.

종교적 순종이나 행위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교회에서 어지간한 직분을 맡은 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긍정적 평판과 칭찬이 따르니까 더 신나서 그런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지는 별개다. 하나님을 사랑 없이 섬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섬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특별한 종교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마음에 기리면 평강이 솟아나야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벤허가 대문의 쉼마를 만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다시 바뀐다. 살퍼본 대로 쉼마를 두들기듯이 만진 때는 하나님을 단지 현실의 복을 주는 분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었다. 큰 환난을 안긴 원수에게 복수할 힘과 여건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또 그런 일념으로 사형장이나 다름없는 노예선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기어이 그 유명한 마차경주 장면에서 보듯이 친구이자 원수였던 로마 천부장에게 승리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죽으면서 너와 나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실은 네가 졌다고 말한다. 죽은 줄 알았던 벤허의 여동생과 엄마가 문둥병에 걸려 살아 있다는 것이다. 벤허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문둥병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치명적 병이었다. 통쾌하게 복수는 했는데 그 원수가 한 때는 절친이었는데다 엄마와 여동생을 구원할 길이 없어 오히려 씁쓸한 뒷맛만 남게 되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에게 한줄기 빛을 던진 이는 바로 예수였다. 엄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나음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노예선을 건넌 것이 자기의 의지력이 아니라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우물가에서 예수에게 생수를 얻어 마신 까닭인 줄 깨달았다.

말하자면 아무 죄 없는 자신에게 닥치는 억울하고도 너무나 큰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자기와 동행하며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더러 형식적 의무적으로 당신을 찾지 말도록, 또 복을 주면 사랑하고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는 식으로 당신을 대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벤허는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워 비로소 아무런 이해타산이나 자신의 죄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쉼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대문의 쉼마도 정성스레 만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슴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감사와 경배가 내포된 모습이다.

예수 안에선 죽은 자도 살아난다. 도무지 가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엎질러진 인생도 회복이 가능하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순수하게 사랑할 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권능이 죄인의 영혼을 감싸 안아야만 그렇게 된다. 구원 이후로는 세상에서의 형통 혹은 고난이 그 참 생명을 절대 가감, 방해, 포기케 하지 못한다. 만에 하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산 채로 맹수에 물려 순교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는 것이다. 죽는 자도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더 크게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게 결실을 맺는 것이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또 영화이긴 해도 벤허, 모두가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서 온전한 쉼마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친구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범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떤 환난도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아주는 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영광스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결국은 참아내는 과정이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거룩하고 순수해지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인생 중에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완전한데다 온갖 자기중심적인 정욕과 죄까지 남아 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참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참아지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너무 선뜻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 덤비지 말라. 사랑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가 할 수 있다는 말도 진실이다.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응답 받았다고 너무 그분의 사랑을 자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식에 불과한 것이다. 다이아 반지, 핸드백, 이벤트를 받아야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투정이다. 어찌 그런 결혼이 정상이며 오래 가겠는가? 그분에게만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은 마음에 심어질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덕적 의로움이나 종교적 열성에 비례하지 않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앞에 엮드리는 자를 당신께서 짝사랑한다는 선언이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어 당신에 대해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신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보라. 과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수성이 얼마나 있는가? 참아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분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길도 없지 않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단순한 의지력, 인내력으로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그분이 나에게 마련해 놓은 천국의 영광을 보길 진정으로 소원하면서

참아야 한다. 최소한 이 땅에서라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기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